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356

2007年 8月

教育學碩士(漢文教育) 學位論文

羅州吳氏族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吳 基 柱

2007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羅州吳氏族譜 研究

吳基柱

羅州吳氏族譜 硏究

A study on the Na-ju O's genealogical table

2007年　8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吳　　基　　柱

羅州吳氏族譜 硏究

指導敎授　權　純　烈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7年　4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文敎育專攻

吳　　基　　柱

吳基柱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李 相 夏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韓 睿 嫄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權 純 烈 印

2007年　6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英文抄錄 ····· ii

Ⅰ. 序論 ····· 1
1. 硏究 目的과 範圍 ····· 3
2. 旣存의 族譜硏究 檢討 ····· 4

Ⅱ. 姓氏의 歷史와 羅州吳氏의 由來 ····· 8
1. 姓氏의 歷史 ····· 8
2. 羅州吳氏의 由來 ····· 16

Ⅲ.『羅州吳氏族譜』刊行經緯와 人物考 ····· 22
1.『羅州吳氏族譜』刊行經緯와 體制 ····· 22
2. 羅州吳氏 人物考 ····· 42

Ⅳ. 結論 ····· 61

參考文獻 ····· 63

ABSTRACT

A study on the Na-ju O's genealogical table

Oh Gi-ju
Adviser : Kwon Soon-yoel Litt.D.
Major : Sino-Korean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genealogy of Naju Oh Family comprehensively. It found that the genealogy of Naju Oh Family was derived from history and family names of Chinese genealogy, and speculated meaning and purposes of the genealogy published.

There were few studies on genealogy in the beginning, but rather genealogy making was activated and many studies on it was developed in various areas of Joseon Period. It examined a possibility that the Korean history of genealogy could be retraced before Goryeo period. Though genealogy making was required to recruit new officials and maintain the class system, the genealogy publication was not active in early Joseon period because of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ren system, exhaust of finance and incineration of genealogy to prevent financial exhaust.

The genealogy when union of families was not satisfactory was published by influential persons in families, especially

well-educated persons individually. When the union was reinforced, direction of genealogy, budget, and instrument were decided at conferences of family representatives .

For the Dongraeseol involving Oh fami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origins. 150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family name was originated, and as ancient genealogy was lost and burned through several battles, serious consideration on it was difficult and it was recorded as it was. However, if it is demonstrated it is Dongjogongpa through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and Donggukohsung, it should be reorganized.

For recognition of true value a genealogy has, what is recorded in it should be based on objective facts, and each fact should be demonstrated through clear examination. In fact, genealogy is valuable as a moral value that promotes the spirit of respecting ancestors and awakens the mind of filial piety, royalty to king, fidelity and justice. And it is intended to honor the great intent forever. So, the true value of genealogy can be enhanced when each fact in it should be objective.

However, as genealogy promoted closed blood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under the influence of class society, it is said that it interrupted the development of society, but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had greater power in positive aspec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vival of positive functions of genealogy that awaken the mind of mutual cooperation and help between clans rather than exclusion of genealogy by uncovering evil practices of genealogy.

Ⅰ. 序 論

人類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작업은 내일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존재하는 우리들이 늦출 수 없는 긴요한 사업이다. 특히 한 氏族 공동체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 씨족의 연원을 밝히는 일임과 동시에 인류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激變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 씨족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남겨주는 것은 단순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제시하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공자 이래 '溫故知新'은 근 2500년간 인류가 지향할 지표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씨족의 발자취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族譜라는 기록물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세대를 넘어 족보에 관한 끊이지 않는 관심은 譜學이라는 학문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譜學은 史學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社會學, 政治學, 民法學, 民俗學 등의 보조 학문으로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즉 가족제도와 가족법, 정치권력의 이동이라든지 사회계층의 변화, 자연부락의 형성 등의 연구에 있어서 족보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보학을 세분하면 同族의 氏族史인 族譜를 비롯하여 行狀, 墓誌銘, 傳記, 文集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학은 宗族을 중시여기는 중국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대 중국의 제도가 정비되던 周왕조 때부터 발달하였는데, 왕실의 계통을 세워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형식은 漢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학'이 형성되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族譜는 원래 중국의 六朝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 것은 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 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북송의 대문장가인 三蘇(蘇洵, 蘇軾, 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규모가 매우 뛰어남으로써 그 후부터 족보를 편찬한 사람은 이를 표본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蘇譜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後漢 이후부터 고관을 배출하던 씨족들이 늘어나 문벌과 가풍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문벌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승진과 혼인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종족은 자기 가문의 문벌과 계통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족보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魏나라 때는 더욱 발달되어 九品中正法[1]을 제정하여 관리를 등용하였고 남북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보학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南朝의 齊나라 사람인 賈希鏡을 보학 연구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진다. 그의 조부 賈弼之는 각 성씨의 족보를 모아 기초를 닦았고, 그의 부친 賈匪之도 이를 계승하여 연구하였다. 이윽고 賈希鏡에 이르러서는 중국 全土의 각 士族의 족보를 총망라하여 1백질 7백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역어냈다. 이것이 士人 족보의 始初로 가장 정확한 계보이다. 이렇듯 족보는 처음에는 관리를 뽑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차 그 목적은 없어지고 종족을 규합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족보의 효시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毅宗 때 金寬毅가 편찬한 『王代實錄』과 任景肅의 『璿源錄』[2]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宗子와 宗女까지 기재하는 등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고려시대에는 동족 간에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高麗史』「列傳」에 부자 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뒷날 각 씨족들이 족보를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가 되었다. 또한 이 책을 관청에 보관하여 관리를 선발하거나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결혼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 즉 문벌이 낮거나 귀족이 아닌 종족은 과거를 보거나 관리로

---

1) 九品中正法 : 위나라의 조조가 실시한 제도로 각 州·郡·縣에 지방장관과는 별도로 중정을 두어 그 중정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 재능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중앙의 이부에 추천하는 제도

2) 璿源錄 : 조선이씨 왕가의 세보를 기록한 것.

뽑히는 데에 많은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문벌에 차이가 있는 가문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3] 이어 조선 成宗 7년(1476)에 간행된 安東 權氏의 成化譜가 출간됨으로써 보학이 명실공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초기의 족보 序文에 의하면 족보란 조상을 함께 하는 동족이 그들의 시조로부터 족보편찬 당시의 자손까지의 계보를 기록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同族의 세계를 기술한 가문의 역사이기 때문에 縱的으로는 시조로부터 현재의 宗員까지의 계보를 알 수 있고, 橫的으로는 현재의 종족 및 상호의 혈연적인 親疎遠近 관계를 알 수 있다.[4]

1. 硏究 目的과 範圍

본고는 羅州吳氏 가문의 계보가 어떻게 편찬되고 구성되었는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족보의 발자취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나주오씨 족보를 통하여 나주오씨의 유래 및 역사를 파악하여 원시 씨족사회의 모습을 추측하는데 있다. 또 병행하여 나주오씨 족보 간행에 있어서의 절차와 체제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족보간행의 보편적 양상을 추론하고, 나주오씨 인물고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고는 나주오씨의 족보 및 여타 우리나라 족보의 서문과 발간 경위를 비교 고찰함을 통하여 일반적 족보의 출현과 족보의 발생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그 서문에 나타난 의의를 통해 족보가 지니는 윤리·도덕적 기능을 기초로 하여 그 내면적 윤리가치를 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족보에 수록된 유명인물을 소개하여 나주오씨의 인물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주오씨의 족보를 비롯한 여러 성씨의 족보를 수집하여 분석·비교하려고 하였다. 특히 많은 족보자료

---

3) 琴士樹, 「한국의 족보와 성씨 의식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p.6~14.

4) 崔在錫,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 조직」, 『역사학보』 81집, 1979, pp.37~38.

중에서 오씨 성씨를 갖으나 본관이 다른 족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여타의 대표적 성씨의 족보와 그에 관련되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분석·서술하는 방법을 택한다.

특히 조선왕조실록·고려사·일성록·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 수록된 족보 또는 족보학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사대부가문의 족보가 지니는 객관적 사료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나주오씨 족보의 형성과 발전을 고찰하고자 한 본고에서는 우선 ①족보의 일반적 역사를 살펴보고 ②나주오씨 족보의 유래 및 근본정신을 밝혀 보면서 그것이 인간윤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③나주오씨 족보의 간행 경위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④족보에 보이는 나주오씨의 인물고를 살펴본다. 동시에 족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족보의 변천과 변용을 고찰하고 현대사회 속에서 족보가 지닌 여러 기능과 역할을 고찰한다.

이렇게 나주오씨의 족보를 연구함은 전통윤리의 가치관을 올바로 파악하여 오늘날 우리의 주체적인 윤리 가치관을 정립함에 있다. 따라서 족보에 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분석·재해석함으로써 창조적 발전과정으로 극복해 가고자 한다. 아울러 족보에 대한 현대인의 윤리의식과 그 행태에 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하여 족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한다.

2. 旣存의 族譜硏究 檢討

초기 족보제작과 연구는 왕실과 사대부 가문에서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前者는 왕실의 혈통보존·공신습봉·조세·군역·왕실혼의 정통성 유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後者는 재산상속·관리등용·군역 등 사대부 가문의 가문적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이들 족보발간과 연구는 일부 족보편찬자에 국한된 것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후에는 족보 燒失을 계기로 조종운, 정시술 등 보학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족보자료가 수집되었다. 이것은 씨족원류와 제성보라는 제목으로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두고 숱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山訟・奉祭祀・軍役・租稅・官吏登用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원용되었다. 그러나 영・정조 연간의 실학자들의 출신배경이 주로 몰락양반이거나 中人, 平民 심지어 庶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면서 사대부 가문의 특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던 족보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참칭과 위보의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성씨본관조사와 족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주로 족보의 외형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연구의 부수적 접근으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즉 효율적인 식민지통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초보적인 외형연구에서 벗어나 족보 내용연구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 계기는 김두헌의 연구이다.[5] 이후 최재석,[6] 송준호,[7] 이수건[8] 등에 의해 비교적 다양한 시각에서 족보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초기 족보의 출현 시기를 고려시대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반화된 호구단자나 묘지명 및 조선전기에 간행된 선원보, 화벌보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존하는 최선본인 安東權氏 成化譜 등 일부 초기 족보를 통해 족보의 始源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조선전기의 족보 중 근자에 발견된 강릉김씨 족보는 조선전기의 안동권씨 족보와 문화유씨 족보와는 확연히 다른 체계를 보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서 조선전기 초기족보에 보이는 외형적 양식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가문의 특성과 족보 제작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

5) 金斗憲,『한국가족제도연구』, 1969(초판은 1948).
6) 崔在錫,「조선시대의 族譜와 동족조직」,『역사학보』81집, 1979.
7) 宋俊浩,「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이해」,『역사학보』81집, 1980.
8) 李樹健,「조선전기 성관체계와 族譜의 편찬체계」, 1992.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족보의 연구는 족보가 가지는 정보의 가치와 양에 비해 그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역사학 관점에서의 족보연구는 족보를 자료로 하여 사회변동이나 사회현상으로서의 신분제도나 사회사·가정사·윤리사 등을 연구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또 족보가 가지고 있는 전기 자료로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헌 정보학적 측면의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족보가 사료로써 부적절하다는 고정관념과 사료적 가치를 가진 초기족보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9] 즉 조선시대의 족보는 양반의 신분적 특권이 현달한 조상의 혈통을 통해 확보하는 데서 연유한다는 문벌의식이 크게 강조되면서 이를 위해 족보편찬과정에서 부터 본관을 바꾸거나 上代世系圖를 조작 윤색하는 행위가 자행되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초기 족보도 일부만이 남아 있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족보를 연구한 학위논문도 역사학 관련,[10] 문헌정보학 관련 수건이 있을 뿐이다. 역사학의 관점에서 연구된 학위논문 3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琴士樹의 논문은 족보연구에 접근하기 위하여 족보 및 성씨의 유래 발달을 간략하게 밝히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전통의식, 즉 족보의식과 성씨의식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李建千의 논문은 국학의 방계학문으로 좁게는 한문학의 한 부분으로 정착한 보학의 중심 텍스트인 족보가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임진왜란을 정점으로 변화된 제작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족보의 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 족보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살피고 있다.

---

9) 車長燮,「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조선시대사학보』2집, p.34.

10) 琴士樹,「韓國의 族譜와 姓氏意識 硏究」,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李建千,「朝鮮朝族譜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李晟喆,「韓國族譜의 根本精神과 그 倫理的 機能」,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李晟喆의 논문은 족보에 나타난 윤리·도덕적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전통적인 윤리 가치관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적 가치관을 함께 이해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간윤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윤리를 재인식하고 현대사회 속에서도 영원히 그 정신적 맥락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연구되었다.

문헌정보학 관점에서의 족보 관련 최초의 학위논문인 尹仁鉉[11]의 연구는 왕실계보의 판본에 관하여 다루었다. 그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족보를 연구한 趙婷化[12]의 논문이 한 편 있으나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족보자료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소장 및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수집과 봉사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밖에 일제 시대 족보를 연구한 崔在錫[13]의 글이 한 편 있으나 1969년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族譜와 1930년 國勢調査에 의하여 만들어진 善生氏의 『朝鮮의 姓』을 자료로 하여 일제 시대 간행된 족보의 여러 가지 명칭과 그 발간년도를 살피고 족보를 간행한 바 있는 동족이나 하나 이상의 同族部落에 集團居住하는 동족을 고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 시대 간행된 족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1) 尹仁鉉,「璿源系譜記略의 板本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2) 趙婷化,「族譜資料 現況 및 運營方向 :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蒼史李春熙敎授定年紀念論叢』, 蒼史李春熙敎授定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3.

13) 崔在錫,「日帝下의 族譜와 同族集團」,『亞細亞硏究』 12권 4호(통권 26호), 亞細亞硏究所, 1969.

Ⅱ. 姓氏의 歷史와 羅州吳氏의 由來

1. 姓氏의 歷史

성씨란 무엇이며, 인간은 언제부터 姓氏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 성씨의 사전적 뜻을 보면, 성이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 즉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일컬음을 뜻하며 氏란 같은 성의 계통을 표시한다. 이는 오늘날의 성씨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고, 옛날에는 이와 다소 달랐다. 본래 성은 母系를 표시하고 씨는 父系를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秦漢 이후에 이르러서는 姓과 氏를 구분하지 않고 姓, 또는 姓氏로 불렀다.『春秋左傳』隱公 8년 조에 의하면, 성과 씨는 天子가 주는데 성은 태어난 혈족을 따라서 주며 씨는 토지를 하사하고서 주는 것이다.[14] 즉 성은 혈연을 나타내고 씨는 지연을 나타내는 것이다. 崔南善은 "姓은 혈통의 淵源을 표시하는 것으로 역시 우리의 姓이란 것에 해당할 것이며, 氏란 것은 같은 姓에서도 소유한 토지로서 분별한 것으로 우리의 本(貫鄕)이란 것에 해당할 것이다."[15] 한 것이 이러한 성씨의 본래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을 사용한 민족은 한자를 사용한 중국의 漢族이라고 한다.『史記』첫머리에 "太皞包犧氏 風姓"이라 하였으니, 기록상으로는 중국은 아득한 상고 때부터 이미 姓氏를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史書를 보면, 고대의 제왕들의 姓을 기록해 두고 있다. 이를테면 神農氏는 姜水 가에서 생장했기 때문에 姜姓이라 했으며, 黃帝는 姬水 가에 살았기 때문에 姬姓이라 했으며, 舜임금은 姚虛에 살았기 때문에 姚姓이라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는 역시 태생의 인연을 따라서 성을 붙인 것으로 母系를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설화들은 先史 때의 일

---

14)『左傳』隱無 8년.
公駭卒 羽父請謚與族 公問族於衆仲 衆仲對曰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15) 崔南善, "『怪奇』창간호" p.28.

이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은 적어도 周나라 때 이미 성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문화가 유입되던 삼국시대부터 성씨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고구려를 보자. 『三國史記』·『三國遺事』에 의하면, 朱蒙이 나라를 건국하고 국명을 고구려라 했고 고구려 왕실의 성이 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몽은 공신들에게 克, 仲室, 小室 등을 賜姓했다는 기록도 있다. 중국 『漢書』에 주몽은 주몽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南齊書』·『南史』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이름을 高璉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왕실의 성으로는 중국의 기록에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장수왕이 사신으로 보낸 고익, 마루, 손참구, 동마 등의 이름에도 모두 성을 붙여 놓았다.

다음으로 백제를 보면, 『삼국사기』·『삼국유사』에 시조인 溫祚가 扶餘에서 왔다고 하여 扶餘씨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의 史書인 『後漢書』·『三國志』 등에는 왕의 이름만 적고 성을 적지 않았다. 『晉書』·『宋書』에 이르러 13대 近肖古王부터 27대 威德王까지는 餘씨로 표기하다가 29대 武王부터 부여씨로 표기했다.

신라는 왕실의 姓인 朴·昔·金이 이루어진 연유가 설화로 전해온다. 유리왕 9년에 六部의 촌장에게 李·崔·孫·鄭·裵·薛를 賜姓했다. 그러나 이 여섯 성도 기실 원래 신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唐나라 제도와 문물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성을 본떠서 漢字姓을 만든 것일 터이다. 중국의 기록에 신라 왕실의 성이 처음 보이는 것은 『通志』 16권 北齊紀 "新羅王金眞興"이며,[16] 『舊唐書』에는 金·朴 兩姓이 많다는 기록이 있다.[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구려·백제·신라가 모두 부족국가 때부터 姓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세기 이전에 건립된 비석으로,

---

16) 『北齊書』 7권 帝紀七.
武成河淸四年二月壬寅 以新羅國王金眞興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17) 『舊唐書』 新羅列傳.
國人多金朴兩姓……七年遣使拜金眞平云云.

진흥왕 때 건립한 순수비, 신라 진지왕 3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술오작비, 진평왕 시대에 건립된 경주 남산의 신성비 등의 비문을 보면 소속 部名, 村名과 이름만 기록하고 성을 쓰지 않았다. 이를 보면 중국의 성이 한반도에 정착되기 전에 우리 민족은 성 대신에 오늘날의 本(貫鄕)에 해당하는 지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구려는 장수왕 시대(413～490), 백제는 근초고왕 시대(346～375), 신라는 진흥왕 시대(540～576)부터 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성을 보면, 고구려는 高・乙・芮・松・穆・舟・馬・孫・董・蔡・淵・明臨・乙支 등이 있고, 백제는 餘・沙・燕・劦・解・眞・木・苩 등 八族과 王・張・司馬・首彌・古爾・黑齒 등이 있으며, 신라는 朴・昔・金 3姓과 李・崔・鄭・孫・裵・薛 6성 및 張・丕 등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왕실의 성인 高・餘・金 3성이 가장 많았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王建은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의 郡縣을 개편하면서 개국공신 및 지방 토호들에게 성을 하사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성씨의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에 성씨는 왕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귀족에 한정되었고, 고려 중기에 와서야 일반 백성들도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고려 중기 文宗 9년(1055)에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법령을 내린 뒤부터 성씨가 차츰 일반 백성에까지 널리 쓰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당시까지 일반 백성들은 중국 성씨를 사용하기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로 된 성씨와 같은 것을 사용해 왔고 이를 중국식 성씨로 고치는 데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야 가능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로 된 중국식 성씨가 한반도에 정착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 진행 과정은 중국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의 시조는 대부분 羅末麗初 또는 그 이후의 인물이며, 고려 文宗 이후의 인물이 많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이 보편화되어 양민들도 성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비 및 천민들에게는 국가가 성씨를 가질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군사를 징집할 목적으로 천민들에게까지 성을 주었다. 그리고 1909년에 民籍法이 공포되면서 모든 백성이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이때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姓과 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때부터 성이 없던 사람들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맡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였다. 머슴의 경우에는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고 명문의 성씨를 취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때 內鮮一體와 皇國臣民化 정책에 의해 성씨를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創氏改名이 1939년 공포되었다. 그리고 1946년 美軍政이 朝鮮姓名復舊令을 공포할 때까지 우리의 성씨가 일본의 성씨에 침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으로 성씨의 기원 및 내력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성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李仲煥의 『擇里志』에 의하면, 신라 말엽부터 중국과 문화를 교유하면서 비로소 성씨가 정해졌으나 官爵을 가진 士族만이 성을 가질 수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성이 없다가 고려가 건국한 이후 비로소 중국의 문화를 본받아 백성들에게 성을 내려 주었다고 하였다. 고려의 개국공신들에게 태조가 賜姓 한 경우인 缶溪洪氏, 慶州裵氏, 平山申氏, 木川卜氏 등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이 밖에도 태조가 賜姓한 예가 많으니, 귀순한 명주장군 順式과 발해태자 대광현에게 각각 왕씨 성을 내렸다. 安東權氏의 경우에서 우리는 성씨가 바뀌어 새로운 성씨가 되는 특이한 예를 볼 수 있다.

안동권씨의 시조인 權幸은 본래 신라 사람으로 金氏였는데 신라 景哀王이 견훤에게 피살되자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古昌郡을 바쳐서 고려에 투항했다. 이에 태조가 '權'을 잘한다고 하여 권씨 성을 하사했다. 權이란 『論語』 子罕의 "可與立 未可與權"에서 온 말이다. 權은 원래 저울로 물건을 저울질하여 경중을 아는 것이다. 즉 태조가 권씨 성을 준 것은 권행이

時宜를 적절히 헤아릴 줄 안다는 뜻에서 권씨 성을 하사한 것이다. 그리고 태조는 고창을 府로 승격시켰다.[18] 안동 권씨는 이로부터 대대로 명문이 되었다.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려가 개국한 뒤 木川 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니, 태조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牛 · 馬 · 象 · 豚 · 獐 등 짐승을 뜻하는 글자를 성으로 주었는데 뒤에 牛는 于로, 象은 尙으로 豚은 頓으로, 獐은 張으로 바뀌었다 한다. 우리나라 성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연유를 고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고려 전기까지는 왕족과 귀족, 관료 등 특정 신분에 한정해 성씨가 사용되었고, 평민들은 여전히 중국식 성씨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고려 文宗 9년(1055)에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법령을 반포한 것이 한반도에 중국식 성씨가 보편화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 중국식 성씨가 정착된 것은 고려 초기에서 중기에 걸친 기간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성씨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바탕으로 한 뿌리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문 중심의 세력, 내지 문벌의 세력이 국가 권력구조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9]

다음은 우리나라의 本貫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관은 본래 氏와 같은 개념의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성과 씨가 같이 쓰이면서 본관을 따로 세우게 되었다. 본관은 本鄕 · 貫鄕 · 貫籍 · 先鄕이라고 하는데, 시조의 출생지 또는 食邑을 따른다.

본관은 중국식 성씨가 정착되면서 생겨났지만 그 기원은 오랜 옛날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다. 즉 삼국시대에 이미 성씨 대신에 그 사람의 출신지를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표기했던 것이다. 진흥왕 순수비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마운령비의 훼부거칠부지 · 사훼부위충지 · 본피부

---

18) 『容齋集』 10권.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權公墓誌.

19) 서혜숙, 「한국의 성씨 시조 신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2

가량지, 황초령비의 훼부복동지・사훼부독형, 북한산비의 사훼굴정차, 창녕비의 훼죽부지・사훼노력지 등이 그것이다.[20] 『삼국사기』 열전에도 "강수는 중원경 사량 사람이다."[21], "해론은 모량 사람이다.[22]" 등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출신 고향을 표기하는 것이 오늘날 본관과 그 의미가 꼭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원초적 의미에서의 본관을 뜻한다면 우리는 성보다는 본관을 먼저 쓴 셈이 된다. 아무튼 出鄕地가 성과 결합하여 동족을 구별하는 표시로서 오늘날과 같은 본관이 되기는 대체로 羅末麗初에 이르는 듯하다. 그 당시 豪族이나 鄕士들 중에는 성 외에 본관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다. 한 종족이 번성하여 여러 분파가 생김에 따라 다른 본관을 씀으로써 본관이 다르면 비록 성이 같더라도 동족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23]

일반적으로 한 종족이 번성하여 여러 분파가 생기면 그 도시조 또는 중시조의 출생지나 식읍을 본관으로 삼는데 일반적으로 郡縣 또는 그 군현 안의 지명을 취한다. 이렇게 하여 본관은 갈수록 분화되어 본래 同姓同本이다가 본관이 나뉘고 나아가서는 성이 나뉘기까지 한다. 慶州金氏와 慶州朴氏를 예로 들어보자. 경주김씨 계열로는 江陵金氏・蔚山金氏・善山金氏・永川金氏・廣州金氏・尙州金氏・英陽金氏・安東金氏・義城金氏・淸道金氏・彦陽金氏 등이 있고, 安東權氏・光州李氏・水原崔氏 등은 他姓으로 이 계열에 속한다. 慶州朴氏 계열로는 密陽朴氏・高靈朴氏・咸陽朴氏・竹山朴氏・尙州朴氏・全州朴氏・順天朴氏・月城朴氏・蔚山朴氏 등이 있다.[24]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성씨는 본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유형으로

---

20) 이승익, 「한국인의 성씨」, 창조사, 1977, p.56.
21) 强首中原京沙梁人也.
22) 奚論牟梁人也.
23) "李仲煥 『택리지』" 총론.
24) "「慶州金氏 族譜」" (1921年刊, 1981年刊) 서문・分派圖 참조.

나눌 수 있다.

첫째, 同祖同本同姓이다. 이는 같은 시조, 같은 본관 같은 성인 경우이다. 가장 많은 성씨가 이에 속한다.

둘째, 同祖同本異姓이다. 이는 같은 시조, 같은 본관이나 주로 성을 하사받거나 그 밖의 이유로 성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駕洛國 首露王의 후손이 金海를 본관으로 쓰면서 金海金氏와 金海許氏로 나뉘는 것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셋째, 同祖異本同姓이다. 같은 시조의 후손으로 본관은 다르게 쓰고 성은 같은 경우이다. 坡平尹氏의 시조 莘達의 후손이 성은 尹氏를 그대로 쓰면서 본관은 南原・咸安・德山・新寧 등으로 나뉘고, 신라 알지왕의 후손이 성은 김씨이면서 본관은 江陵・光山 등으로 나뉘는 것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넷째, 同祖異本異姓이다. 본래 동족이면서 성과 본관을 다르게 쓰는 경우이다. 경주김씨와 양천허씨, 인천이씨와 문화류씨 연안차씨 등이 그 例이다.

다섯째, 異祖同本同姓이다. 시조가 다르면서 본관과 성은 같은 경우이다. 수로왕 계열의 김해김씨와 일본인으로서 임진왜란 때 귀화한 金忠善 계열의 김해김씨가 그 대표적인 例이며, 南陽洪氏에는 시조가 다름으로써 唐洪이라 불리는 계열과 土洪이라 불리는 계열이 있다.

여섯째, 異祖同本異姓이다. 시조와 성은 다르고, 본관은 같은 경우이다. 慶州李氏와 慶州孫氏, 淸州李氏와 淸州韓氏 등이다.

일곱째, 異祖異本同姓이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많다. 金海金氏・義城金氏・安東金氏, 慶州李氏・星州李氏・光山李氏 등이다.

이 밖에도 성씨 중에는 시조가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경우가 있다. 성씨의 기원설화 중에서는 이 경우가 가장 사실적이라 할 수 있다. 압해정씨, 영양남씨, 풍천임씨, 남양홍씨의 시조 등이 그 例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귀화한 시조를 둔 성씨로는 英陽南氏 외 中國系 72성씨, 延安印氏 외 蒙古系 4성씨, 靑海李氏 외 女眞系 4성씨, 위글系인 慶州偰氏, 아랍

系인 德水張氏, 베트남계인 花山李氏, 友鹿金氏 및 日本系 2성씨 등 대략 7계통 85개 성씨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씨는 갈수록 분화해 간다. 따라서 족보를 만들어 그 계통을 분명히 세워놓지 않으면 종족의 혼란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羅州吳氏의 由來

한반도의 吳氏는 中國姓의 吳氏가 東來한 것이다. 吳潤寶의 「誌石記」 및 咸陽 吳相玉이 쓴 『族譜序文』과 『寶城吳氏 族譜』「序文」에 의하면, 신라 智證王 元年(500년)에 중국인 吳瞻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東來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義今女가 拾得한 誌石記의 기록에 의하면 吳翊이 中原의 大將軍으로서 雄豪한 뜻을 품었으나 죄를 얻어 亡命하기 위하여 東來하였다는 설도 있다.

오씨는 이렇게 두 가지 동래설을 가지고 있다. 『吳氏來東文蹟記』의 기록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동방에는 본래 吳姓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나 中原에서 吳瞻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乘舟浮海) 왔다.[25]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확실하게 고증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유래도 소개하고 있다. 바로 義今女가 주웠다는 「誌石記」의 내용이다. 興陽에 사는 義今이라는 女人이 그 집 뒤에서 광주리를 끼고 밤을 줍다가 발을 삐어 땅에 엎어졌을 때 돌 한 개를 구덩이에서 주웠다. 그 모양이 반듯하고 고와서 가지고가 동이 속에 넣어둔 지 몇 년이 지난 뒤로 부터 집안에 災變이 많아 담 밑에 내 버려서 비바람에 일그러졌으나 글자는 분명하고 역력하였다고 한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오씨는 本是 帝嚳高辛氏의 먼 후대의 자손(苗裔)으로 여러 세대를 지나 吳起의 孫인 첨의 아들 翊이 雄豪한 뜻을 품었다가 罪를 지어 배를 타고 망명하다가 풍파를 만나 해남 땅에 이르니 僉使가 병졸들로 하여금 붙잡아 나라에 호송하려 함에 吳公이 진실을 告하고 또 재물을 보내니 僉使가 그 情狀을 참작하고 또한 뇌물을 좋아하여 結縛을 풀고 禮로써 대접하였다.
>
> 이 일이 朝廷에 알려지자 첨사와 吳公을 함께 잡아와 사실을 追窮審問한

---

25) 吳成根, 『羅州吳氏族譜 全』, 羅州吳氏世蹟發刊會, 1999, p.12.
東方本無吳姓人中原吳瞻乘舟浮海而來.

바 吳公이 사실대로 아뢰니 조정에서 첨사는 베어 죽이고 吳公은 불쌍히 여겨 釋放시켜 우리나라에서 살게 하였다.

그 뒤 吳公이 異國人으로서 장가를 들지 못하고 황황히 苦生을 하고 있을 때에 嶺南 咸陽땅에 용모가 추한 한 女人이 있어서 吳公이 請하여 장가들어 아들 3兄第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海州君, 한 사람은 咸陽君, 한 사람은 高興君이 되었다.[26]

앞의 기록에서는 동래하여 온 사람이 吳瞻으로 되어 있지만, 뒤의 「誌石記」에서는 오첨의 아들 吳翊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그것을 증명할 지석이 남아있지 않아 확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오씨 성씨의 유래는 한 조상에게서 연원함을 알 수 있다.

吳氏의 先世는 羅州에서 나왔고 後孫들도 이곳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先代가 이미 오래되었고 子孫들도 衰微해져서 성을 시작한 조상이 어느 時代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吳氏의 貫鄕은 16여개에 이른다. 『성씨의 고향』에 의하면 高敞・軍威・羅州・樂安・同福・寶城・延日・蔚山・長興・全州・平海・咸陽・咸平・海州・和順・興陽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도 나주 吳門의 歷史는 가장 悠遠하다. 『吳氏來東文蹟記』에는 吳氏의 선대를 신라 지증왕 때 중국에서 온 吳瞻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외에는 상고할 길이 없다. 나주 오문은 進仕 諱 淑珪를 中始祖로 하고 高麗朝의 中郞將 諱 偃을 一世祖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보다 앞서 백제 때부터 弁韓 지역에서 살았고 고려의 건국 초에는 명문으로 나주에서 세거하여 왔음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 하였던 吳謙(1496~1582)이 남긴 「羅州吳氏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26) 吳成根, 『羅州吳氏族譜 全』, 羅州吳氏世蹟發刊會, 1999, pp.12~17.
吳氏本項顓高陽氏之裔也歷累世至吳起之孫瞻瞻之子翊以雄豪之志得罪亡命乘舟浮海爲風所飄至于海南地僉使興兵執之將獻于國吳公以實告之又以貨遺之僉使憐其情而喜其賂解縛待之以禮事聞朝廷僉使及吳公一時被執窮問其所由吳公以實告之朝廷誅僉使憐吳公赦居本朝吳公以他邦之人不得娶妻困於遑遑嶺南咸陽地有一女色皃甚惡吳公求以娶之一爲海州君一爲咸陽君一爲高興君.

吳氏의 先世는 羅州에서 나왔고 後孫들도 이곳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世代가 이미 오래되었고 자손들도 衰微해져서 성을 시작한 祖上이 어느 時代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鄕中의 옛 늙은이들이 간혹 傳하는 말에 따르면 始祖가 中興里에서 출생하여 科擧에 급제해 가지고 新羅조정에 벼슬을 하여 金傅王의 駙馬(王의 사위)가 되었고 그 後孫에 進士인 吳淑珪란 분이 있어 正郎인 鄭隨와 及第한 鄭松壽와 함께 中郎將인 鄭寶儒의 사위가 되었으니 松壽는 바로 高麗의 侍中 鄭可臣의 考요, 淑珪는 바로 中郎將 諱 偃의 先祖라고 한다.[27]

또 『고려왕실세계표』와 高麗太祖 王妃인 『장화왕후유적실록』 등을 살펴보면 高麗 太祖가 되는 王建장군의 次妃가 된 吳后의 이야기가 있다.

興龍寺는 錦江(現榮山江) 北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元來 高麗太祖의 莊和王后인 吳氏의 祖父 富佗과 父親인 禧 多憐君의 世家터이다. 羅州內인 木浦(지금의 영산포)에서 多憐君이 沙干 連位의 딸 德交에게 장가들어 王后를 낳았다. 王后가 어느 날 꿈에 개포에서 龍이 솟아올랐다가 이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깨어 父母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兩親이 함께 매우 奇異하게 여겼다.

한편, 이 일이 있었던 얼마 뒤에 太祖가 水軍將軍이 되어 羅州에 出鎭 榮山浦里에 碇泊하게 된다. 太祖가 船上에서 우연히 물가 쪽을 바라보다가 멀지 않은 곳에서 五色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기어 그곳에 나아가 보니 마침 王后가 베천을 빨고 있지 아니한가. 太祖 親히 妃를 맞아 寵愛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胎氣가 있어 아들을 出産하니 그가 곧 太祖의 뒤를 이은 惠宗이다.

뒤에 惠宗이 그곳에 큰 절을 세워 이를 興龍寺라고 했다. 절 앞에 泉石이 있는데 方言으로 浣紗泉이라고 하거니와, 이는 곧 吳氏가 베천을 빨던 셈이다.[28]

---

27) 吳正烈, 『羅州吳氏世蹟』, 羅州吳氏永成齋, 1999, pp.92~94.
吳氏之先 出於羅州 後裔多居之 而世代已遠 子孫衰微 未知始姓之祖爲何代人 鄕中舊老或 傳始祖生於州之中興里 登科仕新羅 爲金傅王駙馬 其後有進士吳淑珪 與正郎鄭隨及第 鄭松壽同爲中郎將 鄭寶儒之婿 松壽卽高麗侍中鄭可臣之考 淑珪乃中郎將諱偃之先也云.

28) 吳正烈, 『羅州吳氏世蹟』, 羅州吳氏永成齋, 1999, pp.169~170.
興龍寺在錦江津北 高麗太祖莊和王后吳氏 祖富佗禧多憐君世家州之木浦多憐君 娶沙干連位女德交 生后 后嘗夢浦龍來入腹中 警覺以語父母 共異之 未幾 太祖以水軍將軍 出鎭羅州泊舟木浦 望見洲上 有五色雲氣至 則后浣布太祖召幸之 遂有娠生子是爲惠宗 面有席紋世謂之襋主 於

909년 王建장군이 水軍을 인솔하여 목포(지금의 영산포)에 留陣하였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 시기에 한국 吳氏 人口는 三百人 정도로 추정하며 羅州 木浦에서 一百人 정도 거주하고 나머지 百濟, 新羅지방에서 二百人이 분산하여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吳后의 祖父는 吳昉이고 父는 吳禧로 羅州에서 世居하던 南方지역의 豪族이었다. 따라서 왕건은 政略的으로 吳閨秀와 婚姻을 하였던 것이다. 地方 豪族은 보통 一代, 二代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父祖가 대대로 나주에서 살았다고 한다. 중국의 吳姓이 海南지역으로 동래하였다는 說과 弁韓 때부터 살았다는 기록과 百濟에서 隆盛했다는 기록에 의거하면, 한국의 吳姓은 南方에서 世居한 것이 分明하다.

王建장군에게 막대한 財物을 지원하여 고려개국에 지대한 공을 세운 羅州木浦 吳氏家門에서는 莊和王后를 따라서 高麗王朝의 왕도 開京과 碧瀾渡로 서기 920년경에 五十八명 정도가 집단 이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吳后의 남자 형제 三명(相, 桓, 檢)이 왕후를 따라 개경에서 왕후를 모시면서 각각 錦城伯(相), 天嶺伯(桓), 首陽伯(檢)의 封을 받았다. 이후 天嶺伯(桓)은 天嶺의 封邑地로 이거하였고, 首陽伯(檢)은 首陽의 封邑地로 이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해주오씨 족보』에 의하면 海州는 곧 首陽이라고 한다.

한편 吳后가 國王과 함께 開京으로 入城할 때, 그 親家一部가 동행하여 함께 開京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開京에 살던 吳后 一家는 慧宗이 흉 하고 定宗・光宗대에 숙청을 당하면서 그 親族 일부가 首陽(지금의 海州)지방으로 옮겨가고, 일부는 天嶺(지금의 함양)으로 避難갔다가 定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주 오씨 슬하에서 태어난 惠宗과 이복형제인 정종・광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혜종의 後見勢力인 나주 오씨 가문에 대한 철저한 肅淸이 일어났다.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 惠宗이 短命하여 945년 34세로

其地建大寺曰 興龍寺 前有泉石浣紗泉 吳氏浣布之泉.

흥하고 고려정권을 장악한 王堯(3대 定宗)일파 세력이 혜종의 친위세력인 왕규와 박술희를 비롯한 문무대신 3백 여명을 역적으로 몰아 처형하였다.

이와 같은 잔혹한 政變으로 인하여 吳氏 一族은 開京 서부지역 海州방면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종 즉위 후 나주 오씨는 몰락하여 역사 전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후 고려중엽까지 나주 오씨 가문에서 顯達한 인물이 배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羅州 吳氏 家門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의 장자 惠宗의 母親인 莊和王后와 그 先系를 조선조의 羅州 吳氏 인물들과 系代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월이 100여 년 흘러가고 고려 11대 문종 9년(1055년)에는 海州에서 吳延寵이 출생하여 16대 예종 2년(1107년) 尹瓘과 함께 女眞族을 토벌하여 協謨同德致遠功臣이 되었다. 다시 參知政事를 거쳐 史部・禮部・兵部判書에 올랐고, 시호는 文襄公이다. 오연총은 외동딸을 윤관의 아들에게 시집보냈다. 吳延寵 時代에 生存했던 韓國 吳氏 人口는 一千人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이 오늘날의 七十萬 韓國吳氏 後孫들의 共同先祖가 되는 것이다.[29]

한편 羅州吳氏 先系 족보에 나오는 廣山村은 마을 앞들이 넓어 廣山里 또는 너부매라고 한 듯하다. 지금은 光山區 松山洞(細洞, 內洞, 宋洞)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가운데 마을인 元部落을 內洞이라 한다.

앞들은 광활한 平野 農耕地帶로 맑은 河川(平林川)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魚登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伏龍山이 있으며 북쪽은 勇珍山의 筆峰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獅狼山이 있다. 마을 주변에 암탉골이 있어 보통 송산동보다는 암탉골로 알려졌다. 이곳에 牝鷄抱卵型의 明堂이 있다고 한다. 農耕時代에는 들 넓고 하천의 물줄기가 넘쳐 쌀농사 짓기에 아주 좋아서 富農이 많았다.

이 마을은 15세기말 漢陽에 거주하던 吳謙이 落鄕하여 살았다고 傳해진다. 吳謙은 朝鮮 宣祖때 右議政을 지낸 名官으로 그분이 살고 계시는 것

29) 吳暎男,『羅州吳氏大宗報』, 2005, pp.26~30.

을 알리기 위해 마을 어귀에 '솟대'가 서 있었고 마을 앞에 下馬碑가 있었다. 지금은 1970년대 중반 耕地整理와 하천 改修工事로 모두 없어져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는 先史時代의 遺物인 立石이 지금도 있다. 마을 뒤 옛 三賢祠터에 廣山祠가 있어 吳謙을 配享하고 있으며 마을 앞 山頂에는 觀水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오겸의 從玄孫 吳應錫이 悠悠自適의 淸高한 生活을 한 곳이다.

관수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자 앞에 구곡천의 맑은 물이 한 눈에 바라본다 해서 觀水라 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하나, 옛 성인인 孔子의 亟稱於水,[30] 孟子의 觀水有述[31]을 본받아 이를 실천해 옮기려는 깊은 의미가 內包되있다 한다. 그 아래에는 500여 년 樹齡을 자랑하는 槐木 5그루(옛날에는 20그루가 있었음)가 있어 마을의 오랜 역사를 확인해 주고 있다. 槐木이 있어 마을을 興盛하게 하고 災殃을 막아주었다 하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에 모시는 堂山祭를 거르자 마을에 火災와 疾病이 猖獗하여 다시 祭를 모시어 平穩을 되찾았다는 傳說이 있다.

내동마을은 나주오씨의 自作一村이었는데 뒤에 達城裵氏, 陽城李氏가 들어와 지금에 이른다. 錦陽君 吳謙이 살았다는 松山洞 887番地(내동마을)에서 최근까지도 기와장 痕迹이 있어 옛 집터를 확인해 주며 그곳은 현재 양성이씨가 살고 있다. 또 羅州 興龍洞 나주오씨 世居地에도 양성이씨가 入城하여 一村을 이루고 있다. 由來誌에 언급된 바와 같이 흥룡동 대밭에 있는 吳淑珪의 碑石을 이들이 묻어버렸다고 한다.

---

30) 亟稱於水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그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마침내 바다까지 이르게 되는 물의 不息之功을 가리켜 이르는 말.

31) 觀水有述 : 急한 물결의 쉴 새 없는 흐름을 보고 이 물의 수원이 한이 없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

Ⅲ.『羅州吳氏族譜』刊行經緯와 人物考

1.『羅州吳氏族譜』刊行經緯와 體制

前章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吳氏의 貫鄕은 16餘派에 이른다. 高敞・軍威・羅州・樂安・同福・寶城・延日・蔚山・長興・全州・平海・咸陽・咸平・海州・和順・興陽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울산・낙안・고창・함평・나주・평해는 해주 오씨에서, 군위는 동복 오씨에서, 장흥・화순・함양은 보성 오씨에서 분적했다[32]고 한다. 그러나 오씨가 백제 때부터 남방에서 살았고, 나주지방의 호족이며 장화왕후의 부친인 多憐君의 三子(相・桓・檢)를 각각 錦城伯(相), 天嶺伯(桓), 首陽伯(檢)에 封하여 각기 봉읍지에서 살게 되었다고 볼 때 한국의 오씨는 여기에서 분파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나주오씨는 多憐君을 先祖로 하는 相(錦城伯)의 계대로 나주(금성)를 본관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중세에 政變, 兵禍로 인하여 한 때 후손이 쇄미해서 계대를 잇지 못하고 16세기에 들어서야 계보도를 編制하여 初譜가 완성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선조 세조 13년(1467)에 함경도 吉州의 土豪였던 咸吉道僉節制使 仁和의 아들인 李施愛(?～1467)가 난을 일으켰다. 이때 조정은 이 난을 평정한 후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공신록[33]에 책록하였는데, 나주지역 출신인 武將 吳自治가 二等功臣으로 책록되어 羅城君이라는 봉호를 봉작 받았다. 따라서 고려 중엽에 진사를 지낸 吳淑珪를 중시조로 하고, 고려 때 中郎將을 지낸 吳偃을 1세조로 삼았다. 羅城君 吳自治는 바로 吳偃의 5세 系孫이다.

吳謙의 「羅州吳氏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에 "상고할 길이 없기에 망령된

---

32) 『吳氏大同譜』참조.

33) 李施愛의 亂 진압으로 인한 「敵愾功臣錄」에 책록된 공신은 1등이 李준, 曺錫文, 강순, 어유소, 朴仲善, 許琮, 尹弼商, 金嶠, 魚有沼, 남이, 李淑琦이며, 2등이 金國光, 許惟禮, 李雲露, 李德良, 裵孟達, 李亨孫, 李從生, 李恕長, 金順命, 金瓘, 具謙, 朴埴, 金伯謙, 魚世恭, 吳自治, 정숭로 張末孫, 손소, 吳順孫, 沈膺, 尹末孫, 김면, 맹석흠이며, 3등이 이부, 李宗, 한계미, 선형, 민발, 오자경, 최유림, 우공, 정종, 정준, 이양생이다.

말을 傳할 수는 없지만 中郎將 이하 兩祖의 遺體가 이곳(羅州)에 모셔져 있으니 後裔된 자손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자가 遠祖를 추모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中郎將에서 禮賓寺正 諱季眞을 生하였고 季眞이 工曹參議 諱穎達을 生하였고 穎達이 府使愼交와 進士 愼中과 愼儀의 三男을 生하였는데 愼交가 敬祖 敬親 敬長을 生하니 함께 경진년의 武科에 及第를 했으나 벼슬하지 않았고 進士 愼中은 羅城君 諱自治를 生하니 敵愾功에 參與하여 考를 錦城君에 贈하게 되었고 祖考는 工曹參議가 되었다.[34]"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나주오씨는 나주를 중심으로 이미 累代에 걸쳐 世系를 이루었고, 하나의 가문을 형성하여 인물을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주오씨는 吳自治의 공훈과 봉군에 힘입어 나주를 貫鄕으로 이은 오씨가 가문의식과 동종의 결속력을 위해 족보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족보는 가계를 기록, 보존함으로써 子子孫孫으로 하여금 崇祖의 정신과 친화의 미덕을 중심으로 충효절의의 관념을 돈후케 하고 선조들의 현덕과 업적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공동정신과 선량한 마음가짐을 견고히 하는 데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아울러 가문의식을 통해서 동종의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나주오씨 문중에서 吳自治를 중심으로 나주지역에 산재한 오씨의 世系를 정리하고 간행하여 오씨문중에 배포한 최초의 譜牒이 『羅州吳氏族譜』인 『丁卯譜』이다. 『丁卯譜』의 「羅州吳氏來東文蹟記」에 "삼가 吳潤寶가 얻은 바의 誌石記 및 咸陽吳相玉 族譜序文과 寶城吳氏 族譜序文 및 기타 吳氏 流傳文字를 참고해 본 즉 모두 吳起의 後裔인 瞻이 배를 타고 東方으로 왔다 하니 이는 모든 吳氏 시초의 역사이다.[35]"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

34) 吳謙, 「羅州吳氏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
其不得考焉 不可妄爲傳說矣 而中郎將以下兩祖遺體 實是安厝於此 爲後裔子孫 居此者 其可不爲之追遠 而念之哉 中郎將生禮賓正諱季眞 季眞生工曹參議諱穎達 穎達生府使愼交進士愼中愼儀三男焉 愼交生敬祖敬親敬長 同登庚辰武擧不仕 進士愼中生羅城君諱自治 參敵愾功 贈考錦城君 祖考則仍工曹參議.

35) 「羅州吳氏來東文蹟記」.
謹按吳潤寶所得誌石記 及咸陽吳相玉族譜序 寶城吳氏族譜序 及他吳氏流傳文字 則皆曰 吳起之後 瞻乘舟來東 是爲諸吳之始.

이미 다른 관향을 가진 吳氏의 派譜는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주오씨 보첩은 吳自治의 封君이후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주를 관향으로 한 오씨가 번성하자 그들의 보첩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을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①吳氏의 先世는 羅州에서 나왔고 後孫들도 이곳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世代가 이미 오래되었고 자손들도 衰微해져서 姓을 시작한 祖上이 어느 時代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鄕中의 옛 늙은이들이 간혹 傳하는 말에 따르면 始祖가 中興里에서 出生하여 科擧에 급제해 가지고 新羅조정에 벼슬을 하여 金傅王의 駙馬가 되었고 그 後孫에 進士인 吳淑珪란 분이 있어 正郞인 鄭隨와 及第한 鄭松壽와 함께 中郞將인 鄭寶儒의 사위가 되었으니 송수는 바로 高麗의 侍中 鄭可臣의 考요, 淑珪는 바로 中郞將 諱 偃의 先祖라고 한다. 그러나 고증을 할 만한 文籍이나 代數나 名諱 등을 상고할 길이 없다.[36]

②아! 무릇 人生이 마치 물이 근원이 있고 山이 條理가 있는 것과 같이 결국 枝派가 비록 千百이 되어 같지 않을지라도 근본을 더듬어 본다면 실은 一人으로 부터 나눠진 것이다. 一人으로 부터 형제로 나눠지고 형제로 부터 四寸으로 나눠지고 六寸 八寸이 되어 親盡하고 情盡하고 服盡하여 길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른바 길 가는 사람이란 기쁜 일에 敬賀하지 않고 슬픈 일에 弔問하지 않아 길 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인데 그 근원을 돌아본다면 一人으로부터 나눠진 것이니 어찌 멀다고 하겠는가. 만약에 길 가는 사람과 같다 하여 박하게 대한다면 진실로 선조에게 죄인인 것이다. 錦城君으로부터 以下의 諱를 쓴 譜는 나로부터 發한 것인데 遠世를 추모하는 심정을 이길 수 없어 眉山蘇氏의 族譜序 속의 말을 引用하여 후손들을 깨우치는 바이며 范文正公이 義田을 設置하고 婚喪의 對處에 差等이 있게 함은 모두 법삼을 만하다.[37]

---

36) 吳謙, 앞의 글.
吳氏之先 出於羅州 後裔多居之 而世代已遠 子孫衰微 未知始姓之祖爲何代人 鄕中舊老或 傳始祖生於州之中興里 登科仕新羅 爲金傅王鮒馬 其後有進士吳淑珪 與正郞鄭隨及第 鄭松壽同爲中郞將 鄭寶儒之婿 松壽卽高麗侍中鄭可臣之考 淑珪乃中郞將諱偃之先也云 而可微文籍代數名諱 不得考焉.

37) 吳希吉,「羅州吳氏譜系序」.
嗚呼凡人之生 猶水之有源委 猶山之有條理 其終之 枝派雖千百不同 而原其本則 實自一人而分來矣 自一人而分兄弟 自兄弟而分四寸 六寸 八寸 至於親盡情盡服盡 爲道人 夫所謂道人云者

인용문 ①에서 보듯이 錦陽君 吳謙(1496～1582)이 보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겸은 이미 1532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청현직을 두루 거친 후에 명종조인 1550년에는 錦陽君에 봉해졌고, 1564년에 좌찬성에 오르고 왕으로부터 几杖을 하사받았으며, 우의정까지 지냈던 분이다. 그는 "世代가 이미 오래 되었고 자손들도 衰微해져서 姓을 시작한 祖上이 어느 時代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계승의식이 한층 더 절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 ②에서 吳希吉(1556～1625)은 고창에 살았으며, 金麟厚・鄭汝立의 문인으로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었으나 곧 화를 면했다. 그는 '친족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 종래는 만약에 길 가는 사람과 같이 박하게 대한다면 진실로 선조에게 죄인인 것이다.'고 하여 역시 종족의 의식과 동종의 결속력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나주오씨 譜牒이 생성되는 배경은 여타 족보와 마찬가지로 世系를 체계화하여 가문의 계통을 알게 하고 후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려는 의도 즉 가문의식에서 싹텄음을 볼 수 있다.

『羅州吳氏族譜』는 羅城君 吳自治 이후 直傍系 후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만력 3년 乙亥年(1575년)에 이 책을 만들 때에는 進士 吳淑珪의 後 中郎將 吳偃에 이르는 그 사이의 연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조상의 名諱를 알아볼 길이 없어 항시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더니 萬曆六年 四月에 鄕人 鄭夢虎가 自稱 同譜를 한 先系라면서 오래된 족보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38]

喜不慶 憂不弔 如道人云 而考其源 則自一人而分 豈遠乎云哉 苟以如道人而薄乎云者 誠祖先之罪人也 自錦城君以下以諱書之者 譜自吾發 盖有尊之之意 以取眉山蘇氏譜書中語也 范文正公置義田 婚喪有等 皆可法也.

38) 吳謙, 앞의 글.
萬歷乙亥歲 成此冊時 進士吳淑珪之後 至中郎將吳偃 其間年代 則長遠 而祖先名諱 無從可憑考 常多悶然者有之矣 萬曆六年四月 鄕人鄭夢虎 自稱同譜系云 袖持 久遠族譜以示余.

② 오씨족보는 從祖 錦陽君 謙이 南平倅가 되었을 때 同宗인 習讀 命福이 傳寫한 보첩을 빌려갔다가 불이 나서 타버렸고, 그 뒤 종조인 진사 訒이 遺籍을 수습하여 족보를 편성하였는데, 정유의 병화로 또한 보존하지 못하였다. 七百年을 전해온 族系를 증거할 수가 없으니 자손의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39]

③ 내가 萬曆 4年 丙子 宣祖 9年(1576年)에 나이가 21세였다. 바야흐로 父喪中에 있었는데 進士訒 할아버지가 일찍이 기록하신 「立張族譜」란 것을 보고 곧 취하여 謄했다. 또 나의 성격이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또 내가 잘 잊어버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일가임을 알게 되면 곧잘 물어서 기록을 했다. 그 조각 조각들을 모아 놓은 지가 해가 쌓였는데 壬辰의 병화와 丁酉의 再亂 그리고 甲午의 家火를 겪으면서도 다행히 보전이 되어 萬曆 38年 庚戌 正月 日 漢陽의 寓舍에 있으면서 비로소 草冊에 기록해 올렸다. 그 후에 내가 平陵馬官으로 江原道 三陟의 郵亭에 있으면서 正冊에 등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빠진 바가 많아서 끝내 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從弟 仲明(希哲의 字)이 본디 이 일에 소상하였으므로 다시 聞見을 더하여 자상하게 하려고 했다. 금년 여름에 내가 泰仁의 守令으로서 不肖人의 誣陷한 바가 되어 子 以精이 京獄에 나포되어 가서 갇히게 되고 나도 또한 이로써 遞職이 되어 서울로 오게 되었다. 仲明의 기록은 비록 올라오지 않았지만 내가 비상한 액운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人事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萬曆 43년(1615), 光海 7年 閏八月 日에 비로소 정책에 올린다. 이것이 비록 草本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亂의 뒤에 兵火로 분탕을 당하여 모든 사람의 家藏이 일체 전해진 것이 없어 참고할 길 없으나 탄식을 하지만 어찌하는가.[40]

①은 7세손인 吳謙이 쓴 「羅州吳氏世蹟」, ②는 9세손인 吳希道(1583~

39) 吳希道, 『나주오씨족보』, 「羅州吳氏由來」.p23.

40) 吳希吉, 「羅州吳氏世蹟」, 1999, pp.98~107.
余於萬曆四年丙子 余年卄一歲矣 余方在父喪中 得見進士訒祖所 嘗錄立張族譜者 輒取傳謄 且余性於此等事 不爲放過 又自謂有善忘之性 見人有族分 則輒問而記之 片片聚之 積有年紀 適壬辰兵火 及丁酉中亂 甲午家火 幸並保全 歲萬曆三十八年庚戌正月日 在漢陽寓舍 始上草冊 其後余以平陵馬官 在江原三陟之郵亭 非不欲謄寫正冊 猶多有闕漏處 終未之也 顧惟從弟仲明 素詳於此事 欲更加聞見致詳矣 今年夏 余以泰仁倅 爲不肖人所誣陷 子以精 至拿囚京獄 余亦以此遞來京洛 仲明之錄 雖未上來 而念余遭厄非常前頭人事未可預料 今萬曆四十三年閏八月日 始謄正冊 此雖草就 而亂後兵火所蕩 凡人家藏一切無傳 無由考得歎如之何哉.

1623)의 「羅州吳氏由來」, ③은 9세손인 吳希吉의 「羅州吳氏譜系序」이다. 吳謙은 吳自治로부터 2세 直系孫이고 오희도와 오희길은 從兄弟로 吳謙으로부터 2세 傍系孫이다.

이 문헌을 통해서 보면, 6세손이며 오자치와 同列인 오명복의 전사한 보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첩이 완전한 나주오씨의 족보라기보다는 家牒의 형태를 가졌으리라고 추론된다. 왜냐하면, 羅城君 오자치로부터 오랜 세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7세손인 오겸이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자료를 수집하다가 家火에 의해서 소실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보면, 더더욱 가첩정도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첩정도의 수준인 보첩은 오겸과 兄弟인 吳訒이 소장한 바로 「立張族譜」이다. 이것이 나주오씨의 최초 보첩의 형태를 띤 족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종형제인 오희도와 오희길의 「立張族譜」에 대한 언급에 대해 기록이 상이점을 갖는다. 오희도는 吳謙이 소장했던 傳寫족보가 家火로 인해 훼손을 당하자 吳訒이 遺籍을 수습하여 족보를 편성하였는데, 정유의 병화로 또한 소실되었다고 하여 「立張族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희길은 인용문 ③에서 보듯이 「立張族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즉, 오희도는 吳訒이 만든 족보가 정유병화로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오희길은 吳訒이 「立張族譜」를 만들었다고 하여 서로 모순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형제간에 각각 족보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吳希吉(1556~1625)이 吳希道(1583~1623)보다 형으로 정유병화 이전에 기록을 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후자의 개연성을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대에 존재했던 나주오씨 보첩은 家牒의 형태를 지닌 「立張族譜」가 최초의 족보였다고 생각된다.

오희길은 이 「立張族譜」를 근간으로 하여 초고를 만들고, 이후 13세손인 吳時鼎(1683~1755)에 의해서 『羅州吳氏族譜』가 완성된다. 오시정은 그 저간의 사정과 노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 吾宗의 보첩은 習讀公 命福가의 화재로 소실 당한 후로 錦陽君 謙이 근대의 世系를 대략 편집하였으나 傍親에게 다 미치지 못하고 또한 中郞將(1세조 偃) 이상의 世系가 未詳하였다. 七松公 訒이 遺籍을 掇拾하여 보첩을 粗成하였으나 또 丁酉再亂에 보전하지 못하였다. 內翰公 希道가 겨우 근대의 祖先의 諱字를 기록하였으나 보첩으로는 이루지 못했다. 泰仁公 希吉이 여러 해의 공력을 들이어 비로소 草譜를 이루었으나 역시 詳細하지는 못하였다. 그 종제 希哲에게 맡기어 다시 듣고 본 것을 더하여 潤色하였다. 宗族들이 京鄕 각처에 살고 있으므로 왕복하여 釐整함에 미치지 못하고 태인공이 홀연히 世網에 걸리었으므로 마침내 유실되어 버릴까 염려하여 여러 책을 기록하였으나 대략 또한 草稿를 만들어 나아 가다가 미완성한 것이다. 그 후에 玉軒大父 祺錫과 進士叔主 大寬이 태인공의 보첩에 의하여 그 雜亂함을 정리하고 闕漏된 데를 보충하여 後生의 아직 싣지 못한 것을 써 넣어 新譜를 만들어 이를 謄하여 諸宗에게 전함으로써 家乘을 삼으니 息蔭堂大父 玄錫이 이어 釐整하고 補添하였으나 아직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갑자기 병이 돋혀 仲胤인 都事公 大濬에게 遺命하여 繼述케 하였다. 도사공이 또 성취하지 못하고 별세하니 임술(1742)년 봄에 이르러 원근의 제종이 湧珍寺에 모여 修譜할 일을 議定하였다. 東岡叔主大夏에게 그 책임을 맡도록 청한 즉 인하여 進士族兄處大와 상의 同事하기로 거의 이루어짐이 있었다. 불행히도 동강 숙주가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홀연히 목병에 걸려 3년이나 오래 끌어 마침내 회춘하지 못하고 진사족형도 연로 사면하니 아! 원통 하도다. 舊譜의 소실은 어찌하여 홀연히 한 불 사이에 그리되었으며, 新譜의 이루어짐은 어찌하여 마해가 많아 누대의 오랜 세월을 걸리게 되었던가. 항상 이를 개탄하고 통석하였다. 을축(1745)년 가을 尼山叔主 大經이 성묘하는 행차에 門長인 叔主 大斌과 더불어 외람히도 나를 추천하여 수보의 책임자로 위탁하였다. 생각컨대 이 庸陋한 나로서는 실로 감내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다. 다만 당초에 구보가 실화되었으나 거듭 輯錄된 것이요, 반드시 구보와 聞見을 이어받은 것이 익혀진 것 같고 오히려 中郞將(1세조 偃) 이상의 世系에는 자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부터 앞으로 더욱 멀어지고 더욱 오래되면 家乘의 전함이 반드시 민몰되어 증거됨이 없어져 후세를 미혹되게 함이 거의 자심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분별하는 데는 가승 같은 것이 없음으로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어 널리 배포 전달해야 할 것이다.[41]

인용문에서 보면, 9세손 吳希吉이 草譜를 만들었고, 이후 종제인 吳希哲

41) 吳時鼎,「羅州吳氏族譜序」,『丁卯譜』..

(1559～1640)이 초보에 윤색하여 초안을 잡았다. 잠시 11세손인 吳祺錫(1651～1702)과 12세손인 吳大寬(1656～1708)이 오희길의 초보를 정리하고 보충하여 출판하여 가승으로 삼았으며, 11세손인 吳玄錫(1646～1708)이 이정하고 보첨하였으나 미완으로 12세손인 吳大濬(1680～1733)이 다시 繼述하였으나 미완되었다. 1742(壬戌)년 원근 제종이 湧珍寺[42]에 모여 修譜議定하여 12세손인 吳大夏(1677～1743)와 族兄인 吳處大(1669～1746)와 공동으로 책임을 맡았으나 미완되었다. 그러다 1745년(乙丑) 가을에 吳大經[43]・吳大斌(1672～1749)이 吳時鼎을 추천하여 수보작업을 시켰고, 1747년(丁卯) 13세손인 吳時鼎[44]과 吳時祥[45]이 협력하여 보첩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나주오씨의 명실상부한 族譜로 바로 현전하는『羅州吳氏族譜』인 丁卯譜이다. 이 丁卯譜인『羅州吳氏族譜』는 나주 용진사에서 1747년 11월 上澣에 발간되었다.

『羅州吳氏族譜』인 丁卯譜는 上・中・下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卷은 13세손인 吳時鼎이 발간할 당시인 1747년 丁卯年에 쓴「羅州吳氏族譜序」,「羅州吳氏世譜序」를 실어 족보를 編制하게 된 경위, 그리고 先代의 족보 초안의 소실에 대하여 소상히 기록하였다. 이어서 필자가 나타나지 않은「吳氏東來文蹟記」[46]에는 吳氏가 中原에서 東來한 사실을 각 誌石記 및 他姓 族譜序文 流傳文字에 依하여 소상하게 釐整하였다. 錦陽君 吳謙이 쓴「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 吳希吉의 所記・吳希道의 所錄이 실려 있다. 吳希吉의 所記는「遺書」・「高麗史」・「族譜序」・「東國輿地勝覽」등 史蹟과

---

42)「羅州牧」,『新增東國輿地勝覽』.
湧珍寺 용진산에 있다. 절에 克復樓가 있는데, 無說山人의「記文」이 있다. 鄭道傳은「登湧珍寺克復樓」라는 시에 "曾讀山人記 思登克復樓 試尋苔徑細 來入洞門幽 古木千章秀 深溪八月秋 灑然滌煩慮 聊可此淹留 : 일찍이 산인의 기를 읽고서 /극복루에 오르리라 생각했다오 /이끼 낀 오솔길을 더듬어 찾아 /깊숙한 동문에 들어 왔네 /천 길이라 고목은 빼어나 있고 /팔월이라 계곡은 가을이로세 /번거로운 생각이 씻은 듯하니 /여기서 오래 오래 머물렀으면"이라고 하였다.

43) 吳大經(1689～1761) 자는 持世, 今尼山縣監. 우암에게 수학한 吳祺錫(1651～1702) 아들.

44) 吳時鼎(1683～1755) 자는 子正.

45) 吳時祥(1677～1759) 자는 昌世, 吳大休의 次子. 13세손.

46) 丁卯譜에 실린「吳氏東來文蹟記」는 누가 썼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조의 동래기이므로 혹『오씨대동보』에서 발췌한 글이 아닌가 추론할 뿐이다.

家傳에서 발췌한 글을 실어 그 사실성을 부각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吳大經은 莊和王后의 사적을 실어 가풍이 고려초에서부터 이어졌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上卷의 부록으로 「羅城君功臣錄」, 「敎旨」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오자치의 敵愾二等功臣錄과 封君교지이다. 다음은 誌狀文이 15편이 실려 있다. 이 誌狀文은 순차적으로 河西 金麟厚가 撰한 「羅原君墓誌」, 「貞夫人申氏墓誌」와 領議政 金在魯가 謹狀한 「錦陽君吳公諡狀」, 저자가 실명된 「韜菴公家狀」, 丈巖 鄭澔가 撰한 「處士公墓表」, 經筵事 鄭弘溟이 撰한 「內翰公墓碣銘」, 大提學 宋相琦가 撰한 「副護軍吳公行狀」, 三淵逸持平 金昌翕이 撰한 「石門佐郎公碑銘」), 德殷 宋時烈이 撰한 「藏溪公行狀」, 丈巖 鄭澔가 撰한 「生老堂公墓表」, 贊善 魯有鳳이 撰한 「松洲公碑銘」, 丈巖 鄭澔가 撰한 「息蔭堂公碑銘」이 실려 있고, 이외도 「副護軍公家狀」, 「蓮江都事公家狀」, 「白蓮堂公家狀」, 「羅州吳氏族譜凡例」, 「羅州吳氏族譜編次千字文排字目錄」, 「羅州沿革記」 등이 謄載되어 있다.

개인별 記事는 上・中・下卷에 그 하위분권으로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으로 나누고 분량을 균등하게 나누어 간략히 실었다. 卷之一의 一面에 중시조로 고려 중엽 진사를 지낸 吳淑珪로부터 慶延, 良秀, 光佐를 싣고, 그 밑에 '이 이상의 세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子字를 쓰지 않고 諱만 쓰나 관직도 또한 계고할 수 없다.'[47]고 하였다. 이어서 고려조에 중랑장을 지낸 吳偃을 1세로 삼았다. 즉 進士公淑珪를 始祖라고 기록하지 않고 中祖라고만 기록하였으며,[48] 진사공 이하 4대의 代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 편머리 제1항에 나주오씨 족보 권지 몇이라 쓰고 제2항에 세수를 썼다. 매장 횡간을 6단으로 하고 장별 색인을 두었다. 索引의 排列은 千字文으로 하였으며 18세손까지 기록하였다. 그 배열 용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

47) 『羅州吳氏族譜』 上卷, 卷之一.
此以上世代未明 故不書子字 書以諱 而官職 亦不可考.

48) 多憐君 諱 禧公 이하 進士公 諱 淑珪公 이상의 세계를 이을 수 없어 시조라 않고 중조라 하였다.

<표 1>

卷次	派祖	千字項目	비고
卷之一	始祖以下四代	天	
	中郎將偃以下七代	天地玄黃	
	生員巖派初疊	宇	
	生員巖派再疊	宙洪	
	忠順崧派初疊	荒	
	世豪派初疊	日月	
	世豪派再疊	盈昃辰宿	
	參軍世俊派初疊	列張寒來暑往秋	
	參軍世俊派再疊	收冬藏閏餘成歲律呂調陽雲騰致雨露結爲霜金	
	世麟派初疊	生麗	
	世麟派再疊	水玉出	
	世鳳派初疊	崑	
	世龜派初疊	崑岡劍	
	世龜派再疊	劍號	
卷之二	羅原君世勳派初疊	巨闕珠稱夜光果珍李柰菜重芥薑海鹹河淡鱗潛羽翔龍師火帝鳥	
	羅原君世勳派再疊第一	官人皇始制文字乃服衣裳推位讓國有虞陶唐弔民伐罪周發殷湯坐朝問道垂拱平章愛育黎首臣伏戎羌遐邇一體率賓歸王鳴鳳在竹白駒食場化被草木賴及萬方蓋此身髮四大五常恭惟鞠	
卷之三	羅原君世勳派再疊第二	養豈敢毁傷女慕貞潔男效才良知過必改得能莫忘罔談彼短靡恃己長信使可複器欲難量墨悲絲染詩贊羔	
	上護軍世翊派	羊	
	習讀命福派初疊	景	
	習讀命福派再疊	行	
	進士卓眞派初疊	維	
	進士卓眞派再疊	賢克念作聖德建名立形端表正	

		空谷傳	
	進士卓眞派三疊	聲虛堂習聽禍因惡積福緣善慶尺	
	自瀅派初疊	璧	
	參奉永壽派初疊	非寶寸陰是	
	參奉永壽派再疊	競資	
	祥南派	父	
	進士德修派初疊	事君曰	
	進士德修派再疊	嚴	
	天壽派	與	

<표 1>에서 보듯이 천자문 중 247자만 사용함으로써 후손들이 영원히 차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후손들이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당대 족보편집자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每派別로 각각 初起・再起・三起라고 表記하여 考覽에 便하도록 했으며 각 傍註는 字・別號・生卒・丘墓・科第・配室姓氏・貫・父祖名・先代名賢達官 등을 기재하고 子女 記載하는 順序는 先子後女 庶子는 嫡女 아래에 쓰고 庶女는 그 다음에 썼다. 嫡派는 卒이라 稱하고 庶派는 終이라 稱하며 承嫡庶派는 또한 卒이라 칭하였다. 婦人은 嫡派는 配라하고 庶派는 室이라 칭하였다. 嫡庶를 莫論하고 60세 이상이면 享年 壽(享年70)를 記載하였다. 女壻는 姓名 鄕 父名 科第職品 및 先代名賢達官을 쓰고 外孫은 三代까지만 쓰고 생졸은 쓰지 않고 관작은 썼다. 無后는 无后라 쓰고 无后에 系子는 本派 名下에 出系라 써서 後派를 알도록 하였다. 本宗은 성을 쓰지 않고 外孫은 성을 써서 內外宗을 구별하였다. 前後室 所生 子女는 各 某氏의 아래에 幾子 幾女라고 기재하였다. 男이 이름이 없거나 女가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 子・女字만 썼다. 특히 傍註에는 字, 號, 官爵, 生卒年, 墓所, 配位 姓貫 父祖名 顯達祖名官爵, 墓所순으로 記載하였다.

이러한『丁卯譜』는 <표 2>와 같이 일반적인 보첩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다.

<표 2>

羅原君世勳派初疊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世勳 見地 富平都護府事 贈議政府左賛 成兼春秋館事 判義禁府事羅 原君天順己卯 生正德甲戌正 月二十日卒 墓元堂羅城君 墓下有碣 文正公河西金 麟厚撰誌銘 配貞敬夫人錦山 金氏父進士安 行九月十八日 卒墓谷城牛谷 面沙器所一女 後配貞敬夫人平 山申氏父典籤 贈左參贊未平 政丞槩曾孫成 化癸亥生嘉靖 甲寅五月十九 日卒享年八十 二生三男四女 墓雙墳有金河 西碑銘	子 **謙** 字敬夫 崇政大夫議政 府左贊成兼知 經筵判義禁府 事春秋館事錦 陽君號菊齋又 號知足菴弘治 丙辰九月初二 日生壬午三月 初九日卒 享年八十七 墓羅城君墓上 有碣 配貞敬夫人竹山 安氏父慥參判 迢曾孫文成公 珣后 墓雙墳有栗谷 碑銘 崇禎紀元後庚 申 贈諡貞簡 不隱無屈曰貞 平易不訾曰簡	**子** 子	子	子	子

下卷의 끝부분에 「譜牒印出始終記」를 실어 당시 소요 경비의 내역을 개

략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당시의 출판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이어서 12세손인 吳大經의 「羅州吳氏譜跋」을 썼다.

『羅州吳氏族譜』는 13세손 吳時鼎 등에 의해 나주 용진사에서 1747年에 丁卯譜가 간행된 후 그 다음해인 1748년(戊辰年) 4월 15일에 茂長에서 재판을 하였다. 이후 4차례의 증간이 이루어졌다. 丁卯譜가 간행된 후 처음으로 증간된 것은 吳鼎源에 의해서 1810年으로 庚午譜라고 할 수 있다. 이어 吳升圭에 의해서 1892年에 壬辰譜로 증간하였고, 吳弼善에 의해 1941年에 辛巳譜로 증간하였고, 吳濬燮에 의해 1981年에 辛酉譜로 호남문화사에서 전5권으로 증간하기에 이르렀다.

나주오씨 최초의 족보인 丁卯譜는 증간이 되면서 그 원형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丁卯譜는 원래 50여질만 간행되었고, 諸亂을 겪으면서 소실되었지만,[49] 吳春根(現居於 軍浦市山本洞)만 이 그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이것을 다시 1999년(己卯年) 12월 10일에 大田 農經出版社 간행하였으니, 이것이 丁卯譜의 第三版으로 『羅州吳氏族譜 全』이다. 이 족보는 단행본으로 표지는 양장본이며, 그 크기는 사륙배판이며, 현대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그 구성은 吳成根이 쓴 「羅州吳氏丁卯譜重刊序」와 丁卯譜, 그리고 부록으로 譯文이 실려 있다. 譯文은 丁卯譜에 실린 吳時鼎의 「羅州吳氏族譜序」, 「羅州吳氏世譜序」, 吳謙의 「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 「李施愛叛亂平定記」,[50] 오희길의 「羅州吳氏譜系序」, 오희도의 「羅州吳氏由來」, 오대경의 「莊和王后史記」, 「羅城君功臣錄」, 「羅州沿革記」, 오대경의 「譜牒印出始終記」, 「羅州吳氏丁卯譜跋」이 국한문혼용체로 번역되어 현대 후손들로 하여금 선계의 史實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맨 끝에는 吳連洙의 「羅州吳氏丁卯譜重刊跋」이 국한문혼용체로 실려 있다.

羅州吳氏는 다시 20派로 분파되었는데, 각파별로 派譜를 간행하였다. 『羅州吳氏世譜(參奉公派譜)』, 『羅州吳氏長灘世譜』, 『羅州吳氏參判公派譜』, 『羅州吳氏世譜(松溪公派譜)』, 『羅州吳氏司正公派譜』 등이 그것이다.

---

49) 吳連洙, 「羅州吳氏丁卯譜重刊跋」.『羅州吳氏族譜 全』, 1999, pp.381~382.
50) 오겸의 所錄에서 새로 추가한 것임.

吳濬燮에 의해 1981年에 호남문화사에서 전5권으로 증간된 『辛酉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앞으로는 漢主國從體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표 3>과 같다. 다만, 큰 틀은 『丁卯譜』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十八世

柱善

十九世

子 恭洙 공수

字號는 西年 小菴이 시다 曆日 一九二〇年 庚申 三月 二十 日生 於三 道面 松山 里八 番地 第하 八八 天性 剛毅 至處 事明 敏忠 義直 四八 年戊 子十 月十 八日 卒하 시니 墓所는 六山 洞一 山에 番地 鼠雀 洞다 乾坐 原이 다 商山 金順 任이 이 配 다號 는陽 山淨 蓮이 月一 九八 華이 法號 는시 다는 正月 一淨 蓮이 二五 年西 面下 首하 日森 西出 生하 第에 서出 生하 시다 父는 竹亭

二十世

子 宣根

字號는 基柱 庭이 宇이 號는 又號 는南 岡이 며요 다西 曆는 一九 月二 十二 日七 丁亥 五月 十二 四이 十日 光山 區二 出六 濟學 孝彈 善務 總務 國하 賞하 校大 學朝 鮮大 學校 院卒 業하 碩士 이니 敎다 育學 書記 官이 이다 官은 州廣 域市 이며 光區 議長 局退 譽名 중이 任하 니 在하 職

二十一世

子 宗炫 종현

字號는 德巖 이이 며다 一九 月七 二八 年十 戊午 月十 二一 十日 光山 區二 道德 洞五 七四 區하 義鳳 亭四 番洞 地五 第에 山七 出生 學專 門業 校하 第의 三番 地鳳 亭이 다高 麗大 學大 學生 科醫 眼科 學卒 業校 醫하 學博 士이 이다 醫고 科大 學校 醫다 學博 士이 이다 配 女 芝殷 지은

二十二世

子 尹俊赫 윤준혁

二 月 千 一 年 十 日 辛 巳 十 二 月 十 四 日 仁 川 에 서 出 生 하 다

二十三世

또 타종족의 보첩과 같이 行列法을 제시하여 결속 의지를 강화하였다. 그 行列法으로 金, 水, 木, 火, 土의 順序이다. 12세부터 50세까지 항렬자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世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行列字	時	源	相	煥	圭 在	善	洙	根	烈 炫	敎 均	鍾	泳	秉
世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行列字	熙	載	鎬	淳	植	榮	吉 志	金	淸	秀	光	幸	錄
世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行列字	浩	權	熹	喜 忠	鐵	泰	利	默	孝	鎭	溫	和	

나주오씨 二十派의 분파 계보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 1981년 “『辛酉譜』, 卷一, p.33.” “『世蹟』, pp. 95～97” 등 參照.

羅州吳氏世系分派圖 二十派

- 中祖 吳淑珪 (오숙규) — 慶延 (경연) — 良秀 (양수)
  - 光佐 (광좌)
  - 哲佐 (철좌)

以上世代未詳故로不書子字하고只書諱字하다

- 起世之祖 偃 (언)
  - 孫後 卓眞 (탁진) — 仲達 (중달)
    - 孟孫 (맹손) — 弼相 (필상) — 彥祿 (언록)
      - 松隱堂公派송은당공파
    - 淑孫 (숙손) — 世相 (세상)
      - 彥國 (언국)
        - 天壽 (천수)
        - 喜壽 (희수)
        - 命壽 (명수)
      - 彥邦 (언방)
        - 萬壽 (만수)
    - 秀孫 (수손) — 漢相 (한상) — 彥都 (언도) — 命哲 (명철)
  - 季眞 (계진) — 頴達 (영달)
    - 敬祖 (경조)
      - 栢隱公派백은공파
    - 敬親 (경친)
      - 松隱公派송은공파
    - 敬長 (경장)
      - 竹隱公派죽은공파
    - 愼交 (신교)
    - 愼中 (신중) — 自治 (자치) — 世勳 (세훈)
      - 謙 (겸)
        - 彥厚 (언후)
          - 南平公派남평공파
        - 彥寬 (언관)
          - 坡城公派파성공파
      - 認 (인)
        - 七松公派칠송공파

九世 十世 十一世

起世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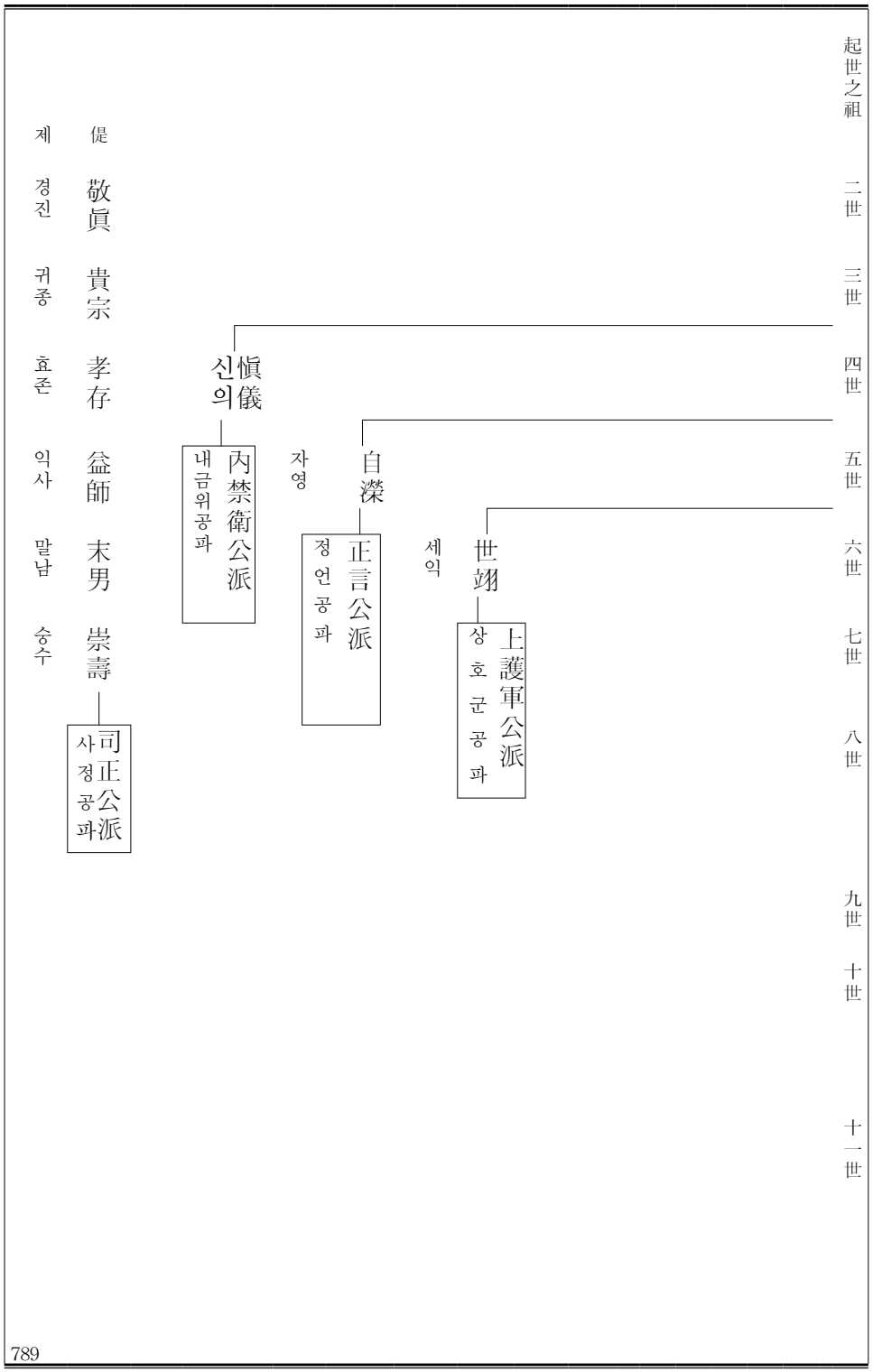
十世

世

世勳

源원

- 彦麟언린
  - 亮哲희철
    - 工曹叅判公派공조참판공파
  - 希希희량
    - 工曹叅議公派공조참의공파
- 彦麒언기
  - 希吉희길
    - 韜菴公派도암공파
- 彦懈언해
  - 无后무후
- 彦彪언표
  - 希一희일
    - 長灘派장탄파
  - 希道희도
    - 明谷公派명곡공파
  - 希有희유
    - 以翼이익
      - 石門公派석문공파
- 彦仁언인
  - 松溪公派송계공파
- 彦欽언흠
  - 无后무후
- 彦智언지
  - 芝峰公派지봉공파
- 彦禮언례
  - 蘭峰公派난봉공파
- 彦弘언홍
  - 无后무후


起世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
愼儀
신의
內禁衛公派
내금위공파
自滎
자영
正言公派
정언공파
世翊
세익
上護軍公派
상호군공파
偍
敬眞
貴宗
孝存
益師
末男
崇壽
司正公派
사정공파
제
경진
귀종
효존
익사
말남
숭수

789

2. 羅州吳氏 人物考

족보의 간행은 먼저 종중의 의결에 따라 유사되는 동족이 각 派의 가족별로 通牒을 발송하여 그 가족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수집한다. 여기에는 일정한 편집체제와 원칙이 있다. 족보의 체제에서 序文과 跋文 등에 시조에 얽힌 사실, 득성의 내력, 자손들에게 대한 희망 또는 지켜야 할 덕목 등이 나타나 있다.

序文과 跋文 외에도 始祖 또는 中始祖, 派祖의 史傳, 墓地・墓所地形圖, 神道碑文등을 수록한다. 또 문중에서 높은 관직을 歷任했거나 문중을 빛낸 유명인사, 나라에 공훈을 세운 분, 학식이 높아 학자로서 존경받은 분의 사전, 묘지・묘소지형도, 言行錄, 神道碑文 등을 수록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記, 誌, 行狀 등의 글을 통해서 羅州吳氏의 인물에 대한 고찰을 주로 하고자 한다. 이는『羅州吳氏世蹟』,『羅州牧邑誌』등을 바탕으로 한다.

世譜란 同一宗族 이상의 始祖이하 각 派系를 同譜로 함을 말하나 내용은 派譜와 동일하다. 대부분 동일 系派의 系統만을 수록하는 경우라도 上系에서 各 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代祖 世代에 따라 甲과 乙派로 나뉘었다는 것과 분파조의 事略 등을 明記하여 수록 편수한 것을 칭하며 世誌라고도 한다. 먼저「羅州吳氏譜系序」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나주오씨 선조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다.

> 내가 젊어서 庶尹(諱謙) 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신 貳相(左贊成錦陽君 諱 謙) 형에게 보낸 序를 보았는데 대략 말하기를 “吳氏는 처음 弁韓에서 일어나 新羅 때에 極盛하고 中世에 高麗 때 쇠했으며 我朝에 다시 興했다.”고 했었다. 이를 본다면 오씨의 先祖가 敬順王의 駙馬되었단 말을 더욱 증험 할 수 있다. …… 吳氏의 先世는 본시 羅州의 中興里에서 일어나 新羅에 벼슬을 했다 한다. 원래 나주는 바로 弁韓의 땅인데 辰韓으로 들어갔고 뒤에 다시 백제의 땅이 되어 新羅에 합해진 것이다. 吳氏의 先祖는 金傅王의 駙馬가 됨에 이르렀으니 金傅王은 바로 신라의 敬順王이다. 이는 반드시 吳氏의 中世祖일터인데 그 처음 일어난 연유와 전해 내려온 脉絡은 상고할 길이 없으니 어찌 개탄스

럽지 않은가. …… 高麗太祖 王建은 처음 弓裔의 조정에 벼슬하여 水軍將軍으로서 海西를 거쳐 羅州에 와서 鎭을 머무르고 있었다. 王建의 初室은 貞州柳氏이다. 왕건이 처음 木浦(榮山浦江邊의 地名)에 이르러 물가의 위에 五色의 雲氣가 있음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錦江津의 興龍洞에 이르니 어떤 여자가 紗를 씻고 있었다. 바로 羅州人 吳氏다. 왕건이 불러다가 가까이 하여 子를 낳으니 바로 惠王이다. 惠王이 흥함에 興龍洞에 殿을 세우고 眞像을 殿에다 모셨다. 吳氏는 바로 莊和王后요 그 父는 多憐君이며 그 母는 德交이다. 흥룡동에 큰 사찰을 세웠다고 한다.[51]

이상에서 보면 나주오씨의 선조가 신라 경순왕의 부마로, 신라 때 그 家勢가 極盛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나주는 바로 弁韓의 땅인데 辰韓으로 들어갔고 뒤에 다시 백제의 땅이 되어 新羅에 합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高麗太祖 王建은 처음 木浦(榮山浦江邊의 地名)에 이르러 물가의 위에 五色의 雲氣가 있음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錦江津의 興龍洞에 이르러 여자를 만나는데 그가 바로 羅州人 吳氏, 즉 후에 莊和王后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나주오씨 선조들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高麗史』에서 발췌한 「莊和王后篇」을 보면 나주오씨로서 고려의 제二대 왕인 惠宗의 어머니인 莊和王后의 내력과 고려 태조 왕건과의 만남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다.

莊和王后吳氏는 羅州 사람이다. 祖父 富佗과 父親인 禧 多憐君이 州의 木浦에서 世居했는데 多憐君이 沙干 連位의 딸 德交에게 장가들어 王后를 낳았다. 王后가 어느 날 꿈에 개포에서 龍이 솟아올랐다가 이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51) 吳正烈, 「羅州(錦城)吳氏譜系序」, 『羅州吳氏世蹟』, 農經出版社, 1999, pp.98~101.
余少時 得見庶尹祖迭二相兄于京洛序 略曰吳氏 始興於弁韓 極盛於新羅 中衰於高麗 得興於我朝云云 以此觀之 則吳氏先爲敬順王駙馬之言 益驗矣 …… 吳氏先 本起羅州中興里 仕於新羅云 羅州 卽弁韓地 而入于辰韓 後爲百濟地 而合于新羅 吳氏先 至爲金傅王駙馬 金傅王 卽新羅敬順王也 此必吳氏中葉則 其始興之由 及傳來之脉 無恁可考 尤可歎也 …… 高麗太祖王建 初任於弓裔之朝 以水軍將軍由海西 留鎭羅州 而王建初室 貞州柳氏 王建 到木浦 望見洲上有五色雲氣 由船至錦江津興龍洞 有女浣布 卽羅州吳氏也 王建 召幸之 生子 卽惠王也 惠王薨 建殿于興龍洞 有眞像 妥安于殿 吳氏 卽莊和王后 其父 多憐君 其母 德交也 興龍洞 建大刹云.

것을 보고 놀라 깨어 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兩親이 함께 매우 奇異하게 여겼다.

한편 이 일이 있던 얼마 뒤에 太祖가 水軍將軍이 되어 羅州에 出鎭, 목포리에 배를 碇泊하게 되었는데 江위에서 五色구름이 떠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수상하게 여기어 그곳에 나아가 보니 마침 王后가 베천을 빨고 있는지라 太祖가 親히 불러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마침내 胎氣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태조의 뒤를 이은 第二代 惠宗이다.

顔面에 돗자리 형태의 무늬가 있어 世上에서는 襁主라고 일렀다. 항상 물로써 잠자리를 씻고 또 큰 병에 물을 담아 팔뚝을 계속 씻기를 싫증내지 않으니 참으로 龍子였다. 나이 七歲에 태조가 王統을 이을 만한 德이 있음을 알고 그 어머니가 숨겨져 있었던 처지로 嗣位를 얻지 못할까 念慮하였으므로 상자에다가 柘黃袍를 담아서 莊和王后에게 下賜하니 后가 大匡 朴述熙에게 이를 보여줬다. 述熙가 그 뜻을 헤아리고 莊和王后의 아들 武를 世子로 세우기를 請했다. 后가 작고하자 諡號를 莊和王后라 했다.[52]

위의 이야기에서는 장화왕후가 고려 태조 왕건을 만나기 전 꿈을 꾼 것으로 시작하였다. 즉 龍이 솟아올랐다가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깨었다는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治者와의 만남의 필연성과 신비성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胎氣를 얻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태조의 뒤를 이은 제2대 惠宗의 모후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고 후에 왕후의 시호를 받게 된 내력을 서술하였다.

다음 글에서는 왕건이 나주 땅에 내려오게 된 경위와 여기서 나주오씨 처자, 즉 장화왕후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가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었다.

고려태조 王建이 三十七세 되던 때 泰封王 弓裔가 온갖 고약한 짓을 도맡

52) 정인지, 「高麗史莊和王后篇」, 위의 책, p.178.
莊和王后 吳氏 羅州人 祖 富佗 父 多憐君 世家州之木浦 多憐君 娶沙干連位女德校 生后 后嘗夢浦龍來入腹中 驚覺以語父母 共奇之 未幾 太祖 以水軍將軍 出鎭羅州 泊舟木浦 望見川上有五色雲氣 至則后浣布 太祖 召幸之以側 微不欲有娠 宣于寢席 后卽吸之 遂有娠 生子 是爲惠宗 面有席紋 世謂之襁主 常以水灌寢席 又以大甁貯水 洗臂不厭 眞龍子也 年七歲 太祖 知有繼統之德 恐母微不得嗣位 以故 笥盛柘黃袍 賜后 后示大匡朴述熙 述熙 揣知其意 請立爲正胤 后薨 諡 莊和王后.

아 놓고 하여 공연히 멀쩡한 사람을 역적모의를 하였다 하여 혹독한 형벌을 하며, 또한 간사한 신하들의 참소를 곧이듣고 착한 사람들을 못살게 하므로 영리한 王建은 혹시나 災禍가 몸에 미칠까 하여 궁예의 주위에서 떠나려고 궁예에게 자청하여 水軍將軍이 되어 수군 수만 명을 거느리고 나주로 내려왔었다.

王建이 수군을 이끌고 나주로 내려 온 것은 이의 이유 외에도 그가 陸戰보다도 海戰에 능숙하여 그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또는 後百濟의 견훤을 南北으로 狹攻하려는 것, 멀리 나주에 와서 자기의 기반을 닦아 王業을 도모하려는 목적 등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주를 점령하고 十年 동안 나주에 주둔하여 충분히 자기 실력을 양성하여 여러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 고려 태조가 되었던 것이다. 하루는 행군 도중 나주 남쪽에 五色 瑞雲이 서린 것을 발견하였다.

옛날에는 이런 굉장한 행군 길에 이상한 기적이 보이면 매우 상서러운 일이라 하여 온 군중이 모두 기뻐하였던 것이다. 王建은 말을 몰아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十七, 八세쯤 되어 보이는 아리따운 처녀가 작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지 않은가.

王建은 처녀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물 한 그릇을 청했다. 그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떠 샘 옆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훑어 넣어 갖고 공손히 바쳤다. 王建이 그 버드나무 잎을 넣어주는 이유를 물은 즉 그 처녀 가로되 "장군께서 지금 행군하시는 중 목이 갈하실 터인데 그냥 물을 마시시면 체할 염려가 있으므로 살살 마시도록 버드나무 잎을 넣었나이다." 왕건이 기이하게 여겨 그 나이를 물은 즉 十八세라 하며 姓을 물은 즉 吳가라 하였다.

그 처녀의 부친 多憐君을 청하여 혼담을 언약한 후 제 二妻로 삼았는데 이분이 莊和王后 吳氏요, 이 吳氏 몸에서 탄생한 아들 武가 고려 태조를 이어 고려 제二대 왕으로 된 惠宗이다. 初娶는 貞州邑 앞 개천가에서 만나 결혼한 柳氏夫人으로서 왕건이 임금으로 추대될 때에 왕건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幕後에서 뛰어나와 "天命이니 받으라."고 권고한 女傑이다.

莊和王后가 王建장군을 만나기 전 어느 날 밤 꿈을 꾸니 이상스럽게 목포 앞바다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솟은 금빛이 찬란한 龍 한 마리가 품에 안기더니 그만 뱃속으로 들어갔었다고 부모님께 그런 꿈 이야기를 했던 바 집안 식구들이 다함께 장래가 매우 행복스러울 것을 기뻐하였는데 이같이 뜻아니 하게 왕건 태조 제二왕후가 되고 아들 武가 王位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 王氏는 龍孫이라 하여 자기의 혈통을 순수하게 하기 위하여 王氏끼리만 결혼하였는데 莊和王后와 신방을 차리고 惠宗을 배어 낳았다. 그러므로 혜

종의 등에는 자리 무늬가 있고 초석을 '王骨자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王建은 왕자를 낳은 마을이라고 해서 興龍洞이라 부르게 하고 莊和王后의 집터에 절을 지어 興龍寺라 했으며 빨래하던 우물을 浣紗泉이라 했다. 그리고 훗날 興龍寺 안에는 惠宗祠를 지어 惠宗을 제사 지냈는데 그도 헐리고 말았다.[53]

위의 이야기는 王建이 災禍가 몸에 미칠까 해서 궁예에게 자청하여 水軍將軍이 되어 수군 수만 명을 거느리고 나주로 내려오게 된 경위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나주에 와서 자기의 기반을 닦아 王業을 도모하려는 목적 등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주오씨의 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왕건이 지방 세력의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나주지역의 세력가였던 나주오씨와 새롭게 부상하려는 힘이 응집되었던 것이다. 이를 왕건과 나주오씨 처자가 각각 '상서로운 징조'를 감지하면서 숙명처럼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나주오씨 처자는 후에 고려 태조의 왕후가 되고, 고려 제2대 왕인 혜종의 어머니로 '장화왕후'라는 시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적인 내용과 전설적 요소를 모두 가미하여 신비하고 위엄 있는 王家의 내력을 피력한 것이다. 다음의 나주지역 출신으로 '羅城君'이라는 봉호를 봉작 받았던 吳自治의 行狀을 통해서 그의 인물됨과 업적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스러운 왕조가 천명을 받고나서, 높은 공훈과 장한 절조를 가진 선비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인재가 시대에 응해 배출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어 위험과 환란을 돌이켜서 태평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오직 그 사람이 충효가 갖추어져 나아갈 곳을 능히 알아서 벼슬을 할 때나 물러나 숨을 때에 권력과 벼슬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몇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고 본 바에 따라 이를 기억해 보면 곧 세조조의 공신인 羅城君 吳公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공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타고난 모습이 순진하였고, 재주와 기량이 일찍 성숙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절도가 오로지 성심과 공경으로 주축을 삼았고, 학문에 나아가는 방향이 가정의 가르침을 복습하

53) 「莊和王后와 興龍洞」, 『羅州吳氏世蹟』, pp.180~183.

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준엄하기가 마치 어른과 같았었다.

二十세에 이르자 經·史·子·傳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또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활 쏘고 말 타는 일에도 능했으니 세상에서 '全才'라고 일컬었다. 한 번은 금산에 사나운 범이 있어 사람과 동물을 물어 죽이는 일이 매우 많았으며, 또 선암사에는 요망한 중이 있어 포악하고 방자하고 흉악하여 살생을 하고 음행을 해서 온 고을이 시끄러워 거의 안도할 수 없게 하니, 문득 吳中三害와도 같은 상태였었다. 공은 일찍부터 백성을 구하고 해독을 제거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생각하였기에, 용기와 힘을 발휘해서 화살 하나와 방망이 하나로 두 해물을 마침내 제거하였더니 온 고을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평안함을 얻었다. 지금까지도 산에는 虎斃之洞이란 이름이 전해지고, 강에는 僧殪之津이라는 이름이 있어 노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칭찬을 하고 있다.

항상 학문하는 목적을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쳐서 문호를 빛내고자 하였으나, 여러 번 과거시험에 떨어져서 집안 살림이 쓸쓸하게 되었다. 이에 몸소 물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였다. 늙은 부모에게 음식을 봉양하기도 어렵게 되자, 드디어 녹을 받는 관리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무과에 응시하여 연이어 重試까지 장원하였다. 곧 宣傳官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主簿와 經歷의 직을 경유해서 지방 고을의 장이 되기를 구하여 그 자리에 보직되었다. 政事에는 엄격함과 용서함을 곁들이고 청백하고 절약 검소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를 받드는 이외에는 한 물건도 받은 일이 없었다. 아전들은 편하고 백성들은 사모하여 가는 곳마다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송덕비가 서게 되었고, 여러 번 조정으로부터 포상의 은전을 받았었다.

임신년에 아버지상을 당하자,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를 멈춤이 없었으며,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측은히 슬픈 마음을 일으켰다. 장례를 치루는 데는 오로지 주자의 가례에 따랐으며, 상을 마친 뒤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를 섬기되, 더욱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었다

세조 13년 정해에 반란을 일으킨 역적 李施愛가 흉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감히 배반되는 일을 마음대로 하면서, 높은 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그 재앙과 피해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조정과 백성이 근심하고 당황하였으나, 흉악한 칼날을 막을 길이 없었다.

공은 본래 세상에 드문 용력과 지략이 있어 바야흐로 역적을 막고 사직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을 중시하게 되었다. 드디어 조정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심에 떠났고, 여러 동지들도 또한 서로 간곡히 세상에 나서기를 재촉했다. 무릇 벼슬에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운세가 위

급함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집이 여러 번 조정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종묘사직이 위태롭기가 조석에 달렸는데, 이를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곧 조정의 명에 따라서 역적 정벌에 나섰으니, 상감이 별전으로 불러들여서 술을 하사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여 그를 송별하였다.

공은 마침내 曺錫文·魚有沼·李綜 등과 마음과 힘을 합하여 분주하게 노력하고 몸소 화살과 돌팔매를 무릅쓰며 죽음으로써 맹서했다. 그리하여 목을 베고 사로잡은 도적군졸이 매우 많아 도적의 세력이 조금 꺾이었다. 그때 높은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기에 알맞은 곳이 있었는데 당시 형세로는 반드시 적에게 빼앗길 곳이었다.

공은 가벼운 기병 몇 명과 함께 빨리 달려가 먼저 그곳에 가서 왼손에 큰 깃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장애물이 되는 흙더미를 걷어치우면서 나팔소리를 내니 적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감히 그곳에 올라오지 못했다. 아군이 이에 힘입어서 먼저 그곳에 올라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시애의 아우 시합은 길주에 있었는데, 가장 호걸스럽고 뛰어나고 오만하여 그 세력이 매우 굳세고 광대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아무도 먼저 그와 대적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은 이종 등과 더불어 바로 달려가 적진에 돌입해서 시합을 포박하여 돌아오는데 미처 진영에 이르기도 전에 추격하는 기병이 크게 닥쳐서 앞선 군사는 사로잡혀 적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나, 공은 홀로 남아 시애의 목을 베고 돌아오니,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두 역적을 죽이고 나니 나머지 무리들은 저절로 평정되어 비록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아무도 누구냐고 물어보지 못하였다. 이에 종묘가 다시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온전히 무사하여 나라의 터전이 굳게 다져진 것은 어찌 당시 여러 사람들의 힘이 아니겠는가?

아! 공은 당시의 큰 공적이 조석문·어유소 등 훈작 받은 여러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았는데도 오직 정벌에 나아갈 때의 지위가 낮은 까닭으로 敵愾二等功臣으로 책정되었고 비를 세워 功을 기록하며 閣을 지어 화상을 모시며 포상도 보통 때와 다르게 책정되었다.

다음해 사월에 통정대부로 승진하고, 칠월에 계급을 높여 嘉善大夫가 되었으며, 나성군을 봉하고 병조참판을 배수하고 앞으로 크게 등용하려고 하였는데, 공은 공훈이 귀하다고 자처하지 않고 겸손히 몸을 닦아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했다. 그래서 여러 번 글을 몰려 말하기를 “자신이 나라를 위해 몸 바쳐 노력한 보답이 아주 적은 것이 아니며, 어버이의 나이 지극히 높아 봉양할 날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그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극하며 고향에 돌아가게 하여 달라고 빌었다. 상감께서도 더 만류하지 못하시고 충분한 여비를 보내서

공을 송별하였고, 함께 조정에서 벼슬하던 여러 사람들도 모두 애석해 하면서 옛 사람이 급류 속에서도 용감히 물러서는 뜻과 같은 용단이라고 대단히 칭찬하여 비유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같이 훈작을 받았던 여러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끝까지 훈작을 보전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공이 이미 이러한 결과를 미리 본 것이 아니겠는가? 한 번 남쪽으로 돌아온 뒤로부터는 늘 어머니를 옆에서 모시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고 적응함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며, 때로는 남루한 차림으로 정원을 거닐면서 조금도 고관의 꾸밈새가 없었다.

이때부터 두 번 다시 서울에는 오르지를 않았다. 마침내 모친상을 당해서는 펄펄뛰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 쓰러지기를 먼저 번 부친상을 당했을 때와 똑같았으며, 장례를 치른 뒤에는 묘 옆에 여막을 짓고 몸소 취사도구를 손에 잡고 아침저녁으로 소리 내어 울며 늘 숨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몹시 야위어 마침내 자리에 눕게 되어 깊은 병에 걸렸다. 점점 병이 악화되었으나, 상주로서 슬픔 속에 우는 것을 더욱 간절히 하더니,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공의 나이는 겨우 五十세였다.

조정에서 제사를 내리시고 부조를 하여 고을 관청에서 장례를 도와 치르되 그의 삶과 죽음, 슬픔과 영화로움의 모든 사적을 다 기록하게 하였다. 3개월이 지난 뒤 모일에 원당산 간좌의 언덕에 나라에서 주관하여 예에 따라 매장하였다. 공은 기상이 온화하고 순수하였으며 재주와 식견이 밝고 민첩하였다. 관리로서 정사할 때나 군인으로 전략을 세우는 일을 두루 연구하여 해박하게 통달하였고, 그 뛰어나고 통달함은 선배들 가운데 찾아보아도 그와 짝할만한 분이 드물다. 그런데도 살아 있는 동안 조정에 벼슬한 날이 많지 않고 평생 쌓은 재능을 다 펼쳐보지 못했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를 아쉬워하였다. 지금 상감께서는 이조판서를 追贈하시고, 시호를 襄平이라 내리시며, 영구히 제사 지내도록 하고 종묘에 배향토록 하였으니 남긴 향기가 바꾸어지지 않게 되었다.

아! 위대하도다. 공의 정성스러운 효도의 순수하고 지극함과 벼슬을 하고 그만둠의 적절함은 반드시 후세의 공평한 평가가 있을지니 나같이 견문이 좁은 사람이 어찌 공의 사적을 부추겨 올릴 수가 있겠는가?

공의 제삿날만 되면 꿩, 노루 등의 동물이 제 발로 찾아와 사로잡힘을 당하여, 제사 음식에 도움을 주니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라 했다. 또 화상을 모신 영정각에 화재가 났었는데, 세차게 타오르던 불길이 겨우 영정의 바깥쪽에 닿았을 뿐 영정의 초상에 이르자 불이 저절로 소멸되었다. 또 꿈에 느낀 조짐이 있었는데, 영매하신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어 산뜻하고 깨끗해서 좋은 향기가 의구하게 더욱 꽃다웠으니, 이는 공의 영혼의 열기가 내렸다는 사실이며, 결

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모두 邑誌에도 자세히 실려 있다.[54]

이는 나주오씨로서 높은 공훈과 장한 절조를 가진 선비였고, 기상과 충절이 뛰어난 오자치에 대한 기록이다. 오자치는 經·史·子·傳 등을 섭렵하였고, 또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서 활 쏘고 말 타는 일에도 능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全才'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처럼 오자치는 장군으로서의 기상이 뛰어나서 화살 하나와 방망이 하나로 두 害物을 제거하였다는 전설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온 고을 사람들이 이에 힘

54) 李後白,「襄平公諱自治行狀」, 위의 책, pp.229~232.
聖朝受命 嵬勳壯節之士 經國濟世之才 膺時輩出 羽翼邦家 轉危難 躋昇平 而惟其忠孝兼全 能知出處顯晦之際 不以權位爲榮耀者 恐無幾人焉 以余所聞覩記之卽 世廟朝勳臣羅城君吳公是也 公自孩提天資純美 才器夙成 事親之節 一以誠敬爲主 進學之方 服習庭訓飾躬修行 儼若老成 及其弱冠 經史子傳 無不融會 且智勇絶倫 能於射御 世以全才稱焉 嘗於錦山 有惡虎 咆噬人物 甚多 仙巖妖僧獰暴姿凶 殺越行陰 一州騷然 幾不安堵 便同吳中三害 公素以救民除害爲己任 奮發勇力 一箭一椎兩害乃去 闔境賴以得安 至今山傳斃虎之洞 江有僧殪之津 古老指以稱道焉 常績學攻文 以立揚門戶爲志 而屢屈公車 家事蕭然 躬執漁樵 澌澹難繼 遂爲祿仕養親計 而武擧連魁重試 卽赴宣傳 由主簿經歷 求補縣邑 政用嚴恕 淸白節儉 朝夕供奉外 一物未嘗取 吏安民懷 到底有堅石去思之頌 累蒙 朝家褒賞之典 壬申遭外艱 哭擗無節 絶而復甦 聞者惻然起哀 執喪一遵朱文公家禮 服闋不赴仕進 事母夫人 益致愉惋焉 世廟十三年丁亥 叛賊施愛 締結凶徒 敢逞不軌 據有嶺徼 禍將不測 朝野憂惶 凶鋒莫遏 公素以不世之勇略 方面捍衛之責 而爲一世所擬重 遂被朝家特選召命勤摯 同志諸公 亦相敦勉催程 蓋公謝仕歸養 已十餘年 雖無意當世 而見國勢岌嶪 曰吾家受累 朝殊恩 宗社危亡 迫在朝夕不可坐視 卽膺命從征 上招入別殿 賜以御醞 慰諭以送之 公乃與曹錫文 魚有沼 李綜等 一乃心力 奔走效勞 躬冒矢石 以死爲誓 斬獲甚多 賊勢小挫 時有高原宜陣之地 勢必見奪於賊 公與輕騎若干疾馳先往 左執大旗 右捲障泥 作角聲 賊聞之 不敢上 我軍賴以先登遂大捷 施愛之弟施合 在吉州 最爲傑鰲 勢甚鴟張 諸將莫敢先敵 公與李綜等 直馳突入賊壘 縛施合以歸 未及還營 追騎大至 前軍被執死賊 公獨斬施愛以歸 一軍莫不震懾 二賊旣戮 餘黨熄平 雖有逞憾之徒 莫敢誰何致使 宗祊再奠 至今晏然 洪業鞏固者 豈不當時諸公之力歟 噫 公當時茂績 不亞於曹魚諸勳之次 而特以從征 官階之卑策爲敵愾等二勳 樹碑記功 立閣圖形 褒賞亦異例焉 翌年四月陞通政 七月進階嘉善 封羅城君 拜兵曹叅判 期以大用 公不以勳貴自居謙牧思退 累上狀言 身之效勞 不可謂小報涓埃 而親年極高 養日不多 辭意切至 乞歸故里 自上挽之不得 厚遺以送 同朝諸公 咸爲歎惜 以古人急流勇退之意盛有稱引 是後同勳諸人 多不保終始 豈公已有先見於此而然歟 一自南還 常侍母夫人側 以順適爲務 有時黃冠野服 逍遙於林泉 小無蟬赫態 自是不復到都下 及其遭艱 擗踊號隕 一如前喪 旣葬 廬于墓側 躬執爨具 朝夕哭泣 常欲隕絶 柴毁骨立 至於委頓床席 沉痾漸劇 哀隕益切 竟至不淑 享年僅五十 朝家致祭賻 官庇藏具生死哀榮 越三月日 禮葬于元堂山艮坐之原 公氣像溫粹 才識明敏 吏政兵籌 周涉博通 其卓犖英達 求之先輩 鮮有儔匹 而前後立朝 不多平生蓄積 未盡展布 識者恨之 今上朝 贈吏曹判書 賜謚襄平 百世不祧配食 廟庭遺馨不替 嗚呼偉哉 誠孝之純至 出處之得宜 必有後世之評 如余謏寡 曷足以揄揚哉 每當諱辰 雉獐等物 自來就捕以助享需 人以爲異事 且影宇有回祿之變 燃炎之烈 纔及邊幅 至於眞像 火乃自滅 又有夢感之兆 英姿完復颯爽 天香依舊愈芳 是靈烈所格 事實不偶 備載邑誌云云.

입어 평안함을 얻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세조 丁亥年에 李施愛의 난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二等功臣에 올랐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堂上官에 올랐으며, 급기야는 嘉善大夫가 되었다는 벼슬 내력을 전하고 있다. 이 후에도 오자치는 장자로서 고향에 돌아가 부모 봉양에 효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는 후대 자손들에게 선조의 덕망과 위업을 동시에 전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오자치에 대한 풍모를 기록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얼굴을 보면 온화한 端士요 行跡을 보면 씩씩한 勇夫라. 그래서 勳貴를 마다하고 움추려 아무 공로도 없는 듯 했으니 丹書나 鐵券이 영화가 아니요 黃冠과 野服이 초라하지 않았다. 비로소 알았도다. 英豪가 세상에 나타남에 건장한 모습을 取하지 아니함을.[55]

이로써 襄平公 오자치의 선비로서의 온화한 모습과 호걸스러운 장부로서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공로도 없는 듯 하였다고 전하여, 겸양의 미덕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羅州牧邑誌』에 기록된 것으로 벼슬에 대한 자세한 내력과 후손들에게 선몽으로써 영험함을 드러낸 전설적 내용이 있다.

> 世祖조 중시에 합격하고 勇力이 보통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으므로 당시에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丁亥년 李施愛난이 일어나자 왕명을 받들고 출정하면서 한손에 깃대를 잡고 또 한 손으로 障泥券을 끌러 부르며 角 소리를 내고 말을 달려서 적진에 돌입하여 자유롭게 뛰며 이시애를 베고 二等敵慨功臣에 올랐으며 병조판서로 羅城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讓平公으로 廟庭에 배향되었다. 본 고을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바위 밑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며 감히 쫓아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地主가 찾아가서 뵙고 간청하며 사람들을 위해 피해방제를 해야 한다고 하므로 공은 활과 살촉하나만 가지고 격노하여 호랑이를 사로잡았다.
>
> 임진왜란 때 공의 자손들이 영정을 안고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다가 정황

---

55) 趙鍾永,「襄平公畵像贊」, 위의 책, p.243.
觀乎容 溫溫端士 察其跡 桓桓勇夫 是以 謝絶勳貴 歛然若無 丹書鐵券 不爲榮 黃冠野服 不爲枯 始知英豪出世 不取貌乎魁梧.

없이 유실해 버리고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는데 문득 꿈에 선몽하기를 "내 초상은 아무데에 있으니 속히 가서 찾으라."고 하므로 다음날 급히 가서 찾으니 과연 꿈속에서 말한 대로 그곳에 있었으며 온 산이 불에 타버렸는데도 초상만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으니 참 신기한 일이라 하겠다. 매년 기일이 돌아오면 1~2일전에 꿩이나 노루 등의 산짐승들이 스스로 와서 잡혀가지고 제수로 쓰이는데 해마다 이와 같은 일이 6~7년 계속되었다고 한다.[56]

다음은 錦陽君 吳謙(1496~1582)에 대한 기록이다. 襄平公은 그의 조부이며, 羅原君으로 추증된 世勳이 아버지이다. 그의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하여 내직·외직을 모두 역임하는 동안 관리의 재질을 보였고, 일을 처결함에 있어 물 흐르듯 하였다고 한다. 그는 세자빈객으로부터 병조·이조판서에 두 번 임명되었고 좌찬성·판의금부사에 세 번 임명되었으나 말미에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끝내 조정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左贊成貞簡公諱謙諡狀」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公의 諱는 謙이요 자는 敬夫라 했고 號는 菊齋 又號는 知足菴이라 했다. 吳氏의 先은 羅州人으로서 鼻祖는 高麗朝 때의 進士 諱淑珪이다. 그 後 中郎將 諱季眞이 있어 諱穎達을 낳았고 朝鮮朝에 들어서면서 知益山郡事를 지냈다. 그 아들 諱愼中은 進士로 贈吏曹參判 錦城君에 封했다. 諱自治를 낳아 세조조 때 敵愾功臣에 錄勳되고 羅城君에 封했으며 卒 후에 吏曹判書와 襄平이라는 諡號가 내렸다. 그 아들 諱世勳은 富平都護府使로서 卒後 左贊成에 追叙되고 羅原君에 封해졌는데 이분들은 公의 高祖 曾祖와 祖 및 父가 된다. 妣는 贈貞敬夫人 平山申氏이니 左議政 文僖公 諱槩의 曾孫이요 黃海道觀察使 諱自準의 孫으로 宗親府典籤 贈議政府左參贊 諱末平의 따님이다.

公은 燕山二年丙辰 九月 漢城 好賢坊의 邸宅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才能과 器量이 夙成하였다. 西峯 柳藕의 門에 들어가 受業하게 되었는데 西峯이 늘 稱讚하여 그 재능을 인정하였다. 外叔文節公 申鏑이 公의 사람됨을 아끼어 積極 激勵하면서 甚히 重하게 여기더니 中宗十七年壬午 成均進士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父親 羅原君의 喪을 當하여 喪中에 胃病을 얻어 겨우 위기를 넘겼던 탓으로 成均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申公이 大科에 失敗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中宗二十年乙酉에 瓦暑別提로 薦擧

56)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羅州牧邑誌』, 향지사·향토지리연구소, 1993, pp.80~81.

하였다. 任期가 끝나자 例에 따라 東部注簿로 승진, 다시 司憲府監察로 옮겼다가 南平縣監으로 나아갔다. 맑고 결단성 있는 政事로 吏屬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백성은 모두 思慕하게 되었다. 同二十七年壬辰 겨울 文科別試에 第二人으로 급제하여 南平縣監에 再任命되었으나 任期를 마치자마자 身病으로 遞職하고 말았다. 이듬해 宜寧縣監을 除授, 다시 外職으로 나아갔다. 宜寧은 원래 피폐한 고을이었으나 公에 힘입어 얼마동안 蘇生하게 되었다. 그 후 한 때 連坐되어 파직을 당했다가 中宗三十五年庚子에 이르러 禮曹佐郎을 拜하고 이내 刑曹正郎으로 승진되더니 갑자기 司諫院獻納을 除授하였다. 이로부터 侍講院文學·弼善, 司憲府持平·掌令·弘文館校理·副應敎 등을 역임하고 同三十七年壬寅 內贍寺僉正으로 임명되자 率眷하여 나주로 귀향, 母夫人의 奉養에 힘썼다. 同三十八年癸卯 南原府使를 除授받고 다음해 觀察使 圭菴 宋隣壽가 地方守令의 治績報告中 으뜸이라고 狀啓함에 通政을 내리고 仁宗元年丙午 內職으로 들어가 兵曹叅知가 되었다. 다음 해 다시 全州府尹으로 나아갔다가 中朔功臣宴에 陪席하니 恩例로 嘉善大夫에 陞階함과 아울러 錦陽君에 封해졌다. 이때 또한 母夫人의 年老함을 들어 外職을 自請, 連이어 潭陽府使와 光州牧使를 지냈다. 明宗九年甲寅 母夫人의 喪을 當하자 哀痛함을 이기지 못한 가운데서도 諸般節次에 疎忽함이 없었다. 服을 마치자 즉 同十一年丙辰 戶曹叅判으로 부름을 받고 上京하여 兵曹叅判에 就任, 다시 大司憲으로 옮겼다가 再次 兵曹叅判兼 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同十三年戊午 慶尙監司를 拜하고 外職으로 나아갔으나 그해 겨울 身病을 얻어 또 다시 귀향하고 말았다. 다음해 資憲大夫로 特進, 禮曹判書를 拜하고 그 뒤 大司憲 및 戶·刑·兵·吏 등 四曹判書를 歷任한 한편 世子賓客 知經筵事 都摠管 등을 兼하였다. 同十六年辛酉에는 正憲大夫로 陞階하여 左叅贊에 오르고 同十九年甲子에 또한 崇政大夫로서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이로부터 數年 사이에 또 다시 吏曹·兵曹判書를 지내고 三拜하여 贊成兼 判義禁府事가 되었는데 宣祖三年庚午 가을에는 左贊成에 除授되었으나 身病治療를 들어 病暇를 얻고 歸鄕한 後다시 朝廷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듬해 朝廷에서는 三公이 모두 缺員狀態여서 大小臣僚들이 論議한 끝에 三公의 자리에는 그 德望으로 미루어 吳某와 같은 분이 또 없다고 하여 右議政에 拔擢하니 當時 事情으로 모두 이를 滿足스럽게 여겼으나 한 爲言者의 固執으로 反轉되고 말았다.

公은 타고난 성품이 溫雅하였을 뿐 아니라 每事에 자상하고 愼重하여 特히 官吏로서의 재능이 뛰어나 政事의 處決은 마치 물 흐르는 것과 같았다. 內外要職을 두루 거치는 동안 實로 刮目할 만한 治績을 많이 남긴 바 있거니와 그 中에서도 吏兵兩曹判書 때에는 朝廷에 僥倖이나 잔꾀로 法을 어지럽힌 者

없었고 비록 억지로 꾸며 이름 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안으로 굳게 지키는 바 있어 일찍이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굽힌 적이 없었다. 그것은 저 尹元衡으로부터 크게 미움과 시기함을 받아 여러 번 中傷謀陷의 對象이 되었지만 끝내 黑白을 가려냈던 嚴然한 姿勢로 미루어 그 氣魄을 엿볼 수 있다. 다만 小人輩가 公을 가리켜 志操가 없다느니 하여 함부로 어림잡아 헐뜯은 결과 마침내 相公의 職을 그만두는 데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나 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狀況을 歎息하여 원망하였다. 이처럼 세상이 스스로 公平한 判斷을 내리니 또한 어찌 公의 人品에 損傷된 바 있으랴.

公은 원래 身病이 잦았기 때문에 많은 醫書를 읽어 攝養의 要를 알았고 特히 程夫子의 生死觀에 對한 가르침에 心醉하여 여기서 所用될 만한 것을 뽑아내어 한 冊을 만들고 이름하여 頤生集이라 하였다.

邸宅에 있을 때는 항상 門戶를 잠그고 讀書에 熱中하곤 하였는데 그저 簡潔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樂으로 삼았다. 日常起居와 飮食은 모두 季節에 맞추어 알맞게 하였고 고을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에서는 공손하고 儉素正直하여 그 꾸밈새 없는 態度가 스스로 尊貴함을 잊은 듯 느긋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믿고 따랐다.

八十三歲 때에 處身하는 法 및 조상 받드는 法과 先墓守護하는 法 등 數十條를 手書하여 子孫들에게 남겼다. 또한 冠婚喪祭 때는 반드시 예법에 따라 實行하니 遠近 사람들이 서로 찾아와 이를 본받아 갔다.

宣祖임금이 屢次 道伯에게 命하여 年老한 분에 必要한 物品을 보내오곤 하였는데 이렇듯 깨끗하고 고요한 福을 누리기 實로 十有三年 마침내 壽八十七로 宣祖十五年壬午 三月九日 廣山邸宅 正寢에서 逝去하였다. 訃音이 朝廷에 이르자 朝政을 廢하고 祭需 등을 下賜하여 弔問하고 致祭하니 五月五日에 聳珍山元堂 先塋곁 뒷등 艮坐原에 禮葬하였다. 이때 또한 官에서 喪具를 補助함에 그 生死와 榮哀에 어찌 餘恨이 있었으랴. 栗谷 李先生이 公의 墓誌銘으로 "한 선비 벼슬에 올라 관청을 가정처럼 다스렸네. 머리가 희도록 벼슬에 있었으니 누구의 은거가 이보다 아름답겠는가. 공은 貳相에까지 올랐으나 진퇴를 삼갔도다. 나이 핑계대고 선선히 물러나 벼슬을 헌신짝처럼 여겼도다.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면서 담박하고 곧게 살았도다. 고을에서는 어른으로 모셨고 조정에선 멀리까지 예의로 공경하였네. 수레도 마다하고 겸손하였으나 임금 그리는 마음 그지없었네. 북방 사람들이 공에 대한 시비를 따졌으나 공이야 어찌 성내거나 민망히 여겼겠는가. 단연코 자신을 믿었도다. 무덤에 銘을 새기어 숨은 자취 드러내려네."라고 읊었다.

潛谷 金文貞公이 東國名臣錄을 編纂할 때에 公의 事蹟을 收錄하여 世上에 내놓았다.

配 竹山安氏는 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公의 墓所와 같은 자리에 있다. 그 先親은 處士 慥요 祖는 牧使 子誠이며 曾祖는 叅判 迢이다. 二男六女를 낳아 長男은 彦厚인데 蔭관으로 臨陂縣令이며, 次男은 彦寬이다. 長女는 臨司 愼喜男에게 出嫁하였고 다음은 歸厚署別提 鄭師尹과 振威縣令 權大勳, 尹霙, 縣監 柳亨進에게 각각 시집갔고, 막내 따님은 宗室 鳳林君 璘에게 出嫁했다. 彦厚는 五男六女를 낳으니 男은 琇, 瑊, 瓛, 璉, 璡이요 女는 李活에게 시집갔다. 그러나 지금 公의 祭祀를 받들고 있는 것은 彦寬의 曾孫 慶錫이다. 愼監司는 四男一女를 두었는데 長男 餘慶은 縣監이며 次男 彦慶은 司諫이다. 다음으로 重慶, 介慶이 있고 女는 玄德亨에게 出嫁했다. …… 嗚呼 公이 세상을 뜨신지 올해로 一百六十六年이 되었는데 于今 나라의 諡號를 받는 特典을 입지 못하고 있다. 公의 季弟 漢城庶尹 諒의 五代孫인 現 尼山縣監 大經이 公의 훌륭한 行蹟이 자칫 빠뜨려짐으로써 그 名德이 묻혀버릴까 크게 念慮한 나머지 詳細한 記錄을 갖추어 이를 朝廷에 보내어 公의 諡號를 請하고자 부족한 在魯에게 글을 付託하니 내 외람되게도 公의 外孫이요 본시 仰慕했었을 뿐 아니라 尼山縣監의 誠意에 感動하여 敢히 不文함을 내세워 辭讓치 못하였다. 다만 公後 한 때 子孫이 衰殘한데다 屢次의 兵火로 家籍이 흩어져 公이 남긴 글과 行蹟이 하나도 傳해진 바 없음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여기 栗谷이 지은 墓文이 남아 있으니 비록 文體가 簡略하여 或 記述에 있어 精密하지 못한 部分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分明 百世에 걸쳐 事實을 징험하는데 不足함이 없다. 삼가 이 글을 根據삼아 거기에 傳해 내려온 事實 한두 가지를 덧붙여 약간 潤色한 끝에 변변치 못하나마 諡狀을 이루니 이로써 贈諡를 맡아보는 奉常寺의 議決에 對備해 두고자 한다.[57]

---

57) 金在魯,「左贊成貞簡公諱謙諡狀」,『羅州吳氏世蹟』, 農經出版社, 1999, pp.313~317.
公 諱謙 字敬夫 吳氏其先 羅州人 鼻祖 麗朝 進士淑珪 其後 有中郎將季眞 生諱穎達 入我 朝 知益山郡事 生諱愼中 進士 贈吏曹參判錦城君 生諱自治 策 世祖朝 敵愾功臣兵曹參判羅城君 贈吏曹判書襄平公 生諱世勳 富平都護府使 贈左贊成 羅原君 寔公之高曾祖禰也 妣 贈貞敬夫人平山申氏 左議政文僖公諱槩之曾孫 黃海道觀察使諱自準之孫 宗親府典籤 贈議政府參贊諱末平之女 以弘治丙辰九月 生公于京都好賢坊之第 幼穎悟 材氣夙成 受學於斯文柳西峯藕 西峯亟稱許之 內舅申文節公鎬 愛公之才 期勉甚重 嘉靖壬午 成均進士以前遭羅原君喪 喪中 得胃疾 幾危故 不能居泮 申公 懼不第 乃於乙酉 薦授瓦署別提 仕滿 例陞東部注簿 遷司憲府監察 出南平縣監 爲治明果 吏懾民懷 嘉靖壬辰我 中廟二十七年冬 擢別試文科第二名 仍仕南平 越三年 病遞 明年 授宜寧縣監 宜素弊邑 而賴公得蘇久之 坐事罷 庚子 拜禮曹佐郎 移刑曹正郎 俄除司諫院獻納自是 遍歷 侍講院文學弼善司憲府持平掌令弘文舘校理副應敎 壬寅 以內贍僉正 挈眷歸 養母夫人于羅州 癸卯 授南原府使 甲辰 觀察使宋圭菴麟壽 上治行第一 陞通政 丙午 入爲兵曹參知 丁未 復出爲全州府尹 叅仲朔功臣宴 以 恩例 陞嘉善 封錦陽君 又以親老 乞外 連除潭陽府使光州牧使 甲寅遭艱 哀毁盡禮 丙辰憂吉 以戶曹叅判 召轉兵曹 移大司憲 還兵亞 兼同知春秋 戊午 出按嶺南 冬 引疾還鄉 己未 特陞資憲 判禮曹 歷大憲戶刑兵吏四曹兼 世子賓客 知經筵事 都摠管 辛酉 加正憲 拜左叅贊 甲子 陞崇政 判中樞 數年間 再判吏兵曹 三拜

이는 금양군의 화려한 전력을 가진 것에 비해 시호를 받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긴 尼山 縣監(諱, 大經)이 금양군의 오대 방손임에도 불구하고 직계손이 다하지 못한 정성을 다해 당시 영의정이었던 金在魯에게 諡狀을 간청하여 이룩된 것이다. 金在魯는 율곡문집에 있는 묘갈명을 주축으로 하여 諡狀을 완성하여 결국 시호가 내려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吳謙(1496~1582)이 쓴 「羅州吳氏族譜遺失及裒集事蹟記」를 통해 가문의 사실적 기록과 동시에 가문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吳氏의 先世는 羅州에서 나왔고 後孫들도 이곳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世代

贊成兼判義禁 隆慶庚午我 宣廟三年秋 以左贊成 謝病 乞暇南歸 遂不復還 朝 辛未夏 三公 缺員 僉曰宿德重望 無如吳某 遂擢議政府右議政 物情 允愜 而爲言者所持 施免 公天資 溫雅 處事 詳愼 尤長於吏才 剖決如流 歷職中外 隨有著績 屢長兩銓 官無倖路 雖不喜皎厲爲名 而內守甚確 未嘗撓屈 以此 大被尹元衡所忌嫉 累欲中傷則涇渭之嚴 可見 而後生輩 謂公少持操 妄加訾謷 至論遞相職 知公者莫不爲之嗟惋 而世自有公評 竟亦何損於公哉 公自以多病 博涉醫方 頗知攝養之要 深有味乎程夫子忘生徇欲之戒 嘗抄著一篇書 名曰頤生集 家居 閉戶看書 惟以簡靜自樂 飮啖起居 皆中節宣 與鄕人處 恭儉眞率 由由然忘其尊貴 而人自欽悅而信服焉 八十三歲時 嘗手書行己之方 奉先之儀 守護先墓之規凡數十條 以貽後昆 冠婚喪祭 必以禮法 遠近 皆來取則 宣廟 累命道臣 致養老需 享淸閒之福 十有三年 壽 八十七而以壬午三月九日 考終于廣山居第之正寢 訃 聞輟朝 致吊祭賦 五月五日 禮葬于聳珍山元堂先塋側負艮之原 官庇襄具 其生死榮哀 無餘憾矣 栗谷李先生 銘公墓曰 士有登仕 式官爲家 白首執板 孰遯是嘉 公躋貳公 來去重輕 引年勇退 弊履簪纓 優遊桑梓 抱澹肥貞 鄕推達尊 朝遠令儀 舍車趾賁 戀主心違 北方之人 議公是非 公豈慍悶 斷乎自諶 玄室有刻 用昭厥潛 潛谷金文貞公 纂東國名臣錄 收編公事蹟 刊行于世 內子竹山安氏 先公歿 與公同墓 考曰處士慥 祖曰牧使子誠 曾祖曰叅判迢 擧二男六女 長男彦厚 蔭官臨陂縣令 次男彦寬 女長 適監司愼喜男 次 歸厚暑別提鄭師尹 次 振威縣令權大勳 次 尹霙 次 縣監柳亨進 次 適宗室鳳林君璘 彦厚 五男六女 男曰琇瑊瓛璉璡 女適李活 今承公祀者 彦寬之曾孫慶錫也 愼監司男 餘慶 縣監 次彦慶 司諫 次重慶介慶 女 適玄德亨 鄭別提男 暹 漢城叅軍 女 適鄭瓚權 縣令男 鵾 同樞摠管 女 適金光彧 次 承旨申應榘 次 閔恪 次贈判書金仁伯 卽我高祖 尹霙夫妻 俱歿無后 柳縣監男 瑛 進士 以孝 旌閭 次 玹璘瑄 女 適正郎吳益昌 次 叅奉辛應純 曾孫以下 不書而其顯者則愼縣監孫副提學天翊 佐郎海翊 俱以文學淸名 著聞 玄德亨 外孫 判書南二星 領議政南九萬 崔奎瑞 應校朴泰輔 申承旨 女壻 判書李時發 李判書 暨我高祖 內外子孫 最盛 公卿相望而不能盡錄 嗚呼 今距 公之下世百六十有六年 而迄未擧易名之典 公之季弟漢城庶尹諒之五代孫今尼山縣監大經 大懼彛章終闕 名德寢湮 謀欲具狀 請于 朝 猥以文字 託在魯 在魯 忝在彌甥 慕仰有素 且感尼山君誠意 不敢以不文辭 第恨公後承 殘微 重以累經兵燹 家籍蕩佚 遺文遺行之紀述者無一之傳焉 而獨栗谷所撰墓文在耳 雖文主於簡 事或疎闕而亦足以徵信百世 謹就其文 參以 一 二傳聞 略加潤色 粗成狀禮而歸之 以備太常採節焉.

가 이미 오래 되었고 자손들도 衰微해져서 성을 시작한 祖上이 어느 時代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鄕中의 옛 늙은이들이 간혹 傳하는 말에 따르면 始祖가 中興里에서 출생하여 科擧에 급제해 가지고 新羅조정에 벼슬을 하여 金傅王의 駙馬(王의 사위)가 되었고 그 後孫에 進士인 吳淑珪란 분이 있어 正郞인 鄭隨와 及第한 鄭松壽와 함께 中郞將인 鄭寶儒의 사위가 되었으니 松壽는 바로 高麗의 侍中 鄭可臣의 考요 淑珪는 바로 中郞將 諱 偃의 先祖라고 한다. 그러나 고증을 할 만한 文籍이나 대수나 名諱 등을 상고할 길이 없다. 아! 상고할 길이 없기에 망령된 말을 傳할 수는 없지만 中郞將 이하 兩祖의 遺體가 이곳에 모셔져 있으니 後裔된 자손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자가 遠祖를 추모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中郞將에서 禮賓寺正 諱季眞을 生하였고 季眞이 工曹參議 諱穎達을 生하였고 穎達이 府使愼交와 進士 愼中과 愼儀의 三男을 生하였는데 愼交가 敬祖 敬親 敬長을 生하니 함께 庚辰년의 武科에 及第를 했으나 벼슬하지 않았고 進士 愼中은 羅城君 諱自治를 生하니 敵愾功에 參與하여 考를 錦城君에 贈하게 되었고 祖考는 工曹參議가 되었다. 다음의 아우 愼儀는 그 習讀(官名) 命福이 영광서 살았다. 그리고 羅城君의 후손과 敬祖 三兄弟의 후손들이 나주의 三加里 廣山村에 많이 살고 있고 中郞將과 禮賓寺正의 兩祖 묘는 광산촌의 남쪽 2, 3百步의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서 平櫃라고 부른다. 만력 3년, 乙亥年(1575년) 이 책을 만들 때에는 進士 吳淑珪의 後 中郞將 吳偃에 이르는 그 사이의 연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조상의 名諱를 알아볼 길이 없어 항시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더니 萬曆 六年 四月에 鄕人 鄭夢虎가 自稱 同譜를 한 先系라면서 오래된 족보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내 상고해 보니 吳淑珪가 鄭可臣의 考와 더불어 같이 鄭寶儒의 사위가 되어 있으며 그 諱는 鄭松壽라 했고 吳淑珪는 子가 吳慶延이요 그 子는 吳光佐라 하여 名諱와 世次가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中郞將 偃과 禮賓寺正 季眞 兩祖는 기록하지 않았고 그 아래 及第武科 吳愼交가 金海守를 지냈다고만 했다. 아! 世代가 오래 되다 보니 각기 들은 바대로만 기록을 하여 譜를 함으로 제문의 기록한 바가 각기 자세한 譜와 疏略한 보가 있어서 그리 된 것일까? 中郞將 偃 할아버지 이하는 우리 문중에서 자상하게 알고 의심이 없는데 그 위의 兩祖 慶延 光佐는 처음 이 譜로 인하여 알게 되었으니 몹시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므로 여기에 追錄해 두는 바이다.[58]

---

58) 吳謙,「羅州吳氏族譜遺失及哀集事蹟記」, 위의 책, pp.91~92.
吳氏之先 出於羅州 後裔多居之 而世代已遠 子孫衰微 未知始姓之祖爲何代人 鄕中舊老或 傳始祖生於州之中興里 登科仕新羅 爲金傅王鮒馬 其後有進士吳淑珪 與正郞鄭隨及第 鄭松壽同爲中郞將 鄭寶儒之婿 松壽卽高麗侍中鄭可臣之考 淑珪乃中郞將諱偃之先也云 而可微 文籍 代數 名諱 不得考焉 噫 其不得考焉 不可妄爲傳說矣 而中郞將以下 兩祖遺體 實是安厝於此 爲

위 記事를 쓴 吳謙은 서로 상이하거나 근거가 모호한 상대 자료의 족보 入錄을 두고 고심했던 것이다. 특히 기존에 전혀 듣거나 보지 못한 가문 史에 관한 가승을 두고 이를 채택해야 할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지 숱한 논의와 검토를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였던 吳謙(1496～1582)에 대한 요약된 인물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吳自治의 손자이며 中宗조에 진사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품이 온화하고 재질이 숙성하여 淸官과 顯職을 두루 거쳐서 벼슬이 贊成에 이르렀고 錦陽君을 봉하였다.
>
> 일찍이 노후에 관직을 사퇴하고 돌아와서는 글 읽기를 좋아하니 나라에서는 본도의 방백에게 명을 내려서 優老의 은자를 하사하였고 스스로 처신에 대한 行己 방책과 祭祀의 범절을 써서 자손들에게 남겨주었으니 시호는 貞簡공이다.[59]

오겸의 온화한 성품과 재질이 숙성하여 淸官과 顯職을 두루 거쳤음을 그리고 있다. 또한 관직을 사퇴하고서는 읽기를 좋아하여 祭祀의 범절 등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손들의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나주오씨로서 벼슬로 가문을 빛내며 정성과 효행이 극진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을 『羅州牧邑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後裔子孫 居此者 其可不爲之追遠而念之哉 中郎將 生禮賓正諱季眞 季眞 生工曹參議諱穎達 穎達 生府使愼交 進士愼中 愼儀 三男焉 愼交 生敬祖 敬親 敬長 同登庚辰武擧 不仕 進士愼中 生羅城君諱自治 參敵愾功 贈考錦城君 祖考則仍工曹參議 次弟愼儀 曾孫 習讀命福 居靈光而羅城君之後 敬祖三兄弟之後 多居羅州 三加里 廣山村 中郎將 禮賓正 兩祖墓 在廣山村南二三百步 俗號平櫃 萬歷乙亥歲 成此冊時 進士吳淑珪之後 至中郎將吳偃 其間年代 則長遠而祖先名諱 無從可憑 考常多悶然者 有之矣 萬曆六年 四月 鄕人鄭夢虎 自稱同譜系云 袖持久遠族譜 以示余 余考之 則吳淑珪與鄭可臣之考 同爲鄭寶儒之婿 諱鄭松壽 而吳淑珪 子 吳慶延 子 吳光佐 名諱世次 昭然可考矣 而中郎將偃 禮賓正季眞 兩祖 又闕遺不錄 其下以及第武科吳愼交 金海守云云 噫 世代久遠 記其所聞 而爲譜諸門所錄 互有詳略而然耶 中郎將偃祖以下 則吾門所詳知而無疑矣 其上兩祖 慶延 光佐 始得因是譜而知之 深以爲幸喜而追錄于此.

59)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앞의 책, pp.81～82.

吳訒(1507~1559) : 錦陽君 謙의 아우이며 중종조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세상명리에 단념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강가에 누대를 짓고 觀魚臺라 이름하였으나, 소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 七松亭이라 이름하고 고기를 보면서 그 이치를 살피고 소나무를 보면서 그 절개를 사랑하며 鶴氅衣입고 羽扇을 들고 어슷거려 노닐면서 일생을 마쳤다.

일찍이 지은 詩에 이르기를, "쇠퇴해지면서 몸에 병이 많으니 깊숙이 시내 위 마을에 居하네. 가장 밝은 것은 쌓인 눈 때문이며 客을 위해서 밤에 문을 열었네(落魄身多病 幽居溪上村 上明日積雪 爲客夜開門)."라고 했다. 호는 七松居士라 하였다.[60]

吳希吉(1556~1625) : 自治의 玄孫으로 집에 있으면서 제례를 행할 때 정성과 효행이 극진하였기에 많은 感鷹을 받은 일이 있었고 보는 것이 밝고 식견이 높았으며 일찍이 賊臣 鄭汝立과 관계를 단절하고 宣祖조 임금에 嘉奬을 입고 진전 참봉(경기전)으로 제수되었는데 때마침 임진왜란을 당하여 御容과 조선조 實錄을 등에 지고 피난하였다가 龍灣 行在所에 이르니 상감께서는 哭拜를 드리고 친히 제를 지내면서 希吉을 명하여 獻官으로 삼고 衛聖一等勳에 기록되고 초상을 그려 하사하였으며 泰仁현감으로 제수되었고 일찍이 道東淵源錄과 天命圖設을 저술하여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며 號는 韜菴이다.[61]

吳希道(1583~1623) : 自治의 玄孫으로 고상한 뜻을 품고 명리를 탐내는 마음이 없이 담박하게 지내면서 俗物을 버리고 기질이 순수하며 재질과 기량이 숙성하였다. 宣祖조 사마시험에 합격하였고 光海君 때 십년동안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가 仁祖조에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檢閱에 이르렀다.[62]

吳挺男(1566~1626): 進士에 합격하고 집에 있으면서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모의 전후 병환에 임하여 모두 손가락을 깨서 수일간 연명케 했고 임진왜란 때 義穀을 모아 충성을 다하니 의금부 도사로 증직되었으며 호는 蓮江이다.[63]

이상으로 나주오씨의 인물들의 행적과 업적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60) 위의 책, p.85.
61) 위의 책, p.97.
62) 위의 책, pp.99~99.
63) 위의 책, p.101.

우선 「羅州吳氏譜系序」를 통해 선조의 내력을 알 수 있었다. 吳氏의 先世는 羅州의 中興里에서 일어나 新羅에서 벼슬을 하였다. 원래 나주는 바로 弁韓의 땅인데 辰韓으로 들어갔고 뒤에 다시 백제의 땅이 되어 新羅에 합해진 것이다. 吳氏의 先祖는 敬順王의 駙馬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2대 왕인 惠宗의 어머니가 된 莊和王后에 대한 신비한 꿈의 내력과 王建과의 만남에 대한 행적, 吳自治의 行狀, 吳謙의 謚狀 및 吳謙의 遺失記 등 사실적인 기록과 함께 전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가문의 행적을 높이고자했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吳希道(1583~1623)는 자연을 벗삼아 살았는데, 이곳을 '鳴玉軒'이라 하였다. 이곳은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에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민간 정원으로 꼽힌다. 교육을 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로 지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나주오씨 인물들은 대체로 세상의 물욕에서 벗어나서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학행과 덕망을 전함으로써 가문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을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結 論

위에서 우리는 나주오씨 족보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주오씨 족보의 형성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족보의 역사와 성씨의 유래가 근간이었음을 밝히고 족보발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족보서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초기족보에 대한 깊은 연구는 적은 편이지만 오히려 조선조에 다양한 각도에서 족보제작과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족보발생의 역사가 고려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관리등용과 신분제유지를 위해 족보 제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에 족보 발간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왕실에서 적통을 유지하기 위한 적서문제, 봉군제 襲封으로 인한 재정의 고갈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족보의 소각에서 기인한다.

족보 간행의 절차는 가족의 결합이 불충분한 단계에서는 宗族내의 유력자, 특히 학식 있는 사람에 의해 개인적으로 행하여졌다. 그 결합이 강화되면서부터는 宗中代表者會議에서 修譜의 방침, 예산, 기구 등이 결정되었다.

吳氏의 족보를 한국 오성의 시조 東來說에 있어서도 각 本貫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유래가 千百년이 지났고 고대 족보가 兵亂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紛失되고 燒失되어 詳考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각기 전한 바데로 기록한 연유라 하겠으나 문헌의 고증에 동국오성이 동조공파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吳姓 전체의 중지를 모아 통일 하여야 할 것이다.

족보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모든 기재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 그대로의 것이어야 하며, 그 사실 하나 하나가 확실한 考證과 典據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진실로 족보는 崇祖의 精神과 和睦의 美德을 涵養하게 되고 忠孝節義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倫理道德的 가치가 있는 값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담긴 큰 뜻을 永久히 기리도록 하는 데 그 본의가 있는 것일진대 족보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하나하나가 客觀的일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족보가 계급사회의 영향 하에서 전해오는 과정에서 폐쇄적인 血統의식을 조장하여 사회발전을 저해하였던 점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족보에 관계되는 폐단만을 들추어내어 무조건 족보를 배척하기 보다는 祖上의 훌륭한 뜻을 되새기고, 자기의 뿌리를 찾으며 同族간에 相扶相助하는 정신을 깨우쳐 주는 족보의 긍정적인 機能을 되살리는 데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본고에 대한 미흡점은 지속적으로 고찰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參 考 文 獻

1. 資料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文獻備考』
○『文獻通考』
○『隋書』
○『新增東國輿地勝覽』
○『漢書』
○『海東姓氏錄』

2. 單行本

○『樓亭題詠』, 광주직할시, 1992.
○『羅州牧邑誌』,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3.
○『譜學便覽』, 한국성씨사료연구원, 2006.
○『吳氏略史』, 한국성씨사료연구원, 2006.
○『韓國人의 族譜』, 한국인의 족보편찬위원회 편, 1986.

3. 族譜

○『나주오씨 세적』, 농경출판사, 1999.
○『나주오씨 유래』, 농경출판사, 2001.

○ 『나주오씨 족보』 정묘보, 1747.
○ 『나주오씨 대동보』 호남문화사, 1981.
○ 『나주오씨 참판공파보』, 농경출판사, 2002.
○ 『남양홍씨 세보』, 홍사필, 1990.
○ 『남평문씨 순평부원군파대보』, 낭주인쇄사, 1997.
○ 『동복오씨 세적편』, 엔코리안, 2004.
○ 『수원백씨옥봉공파보』, 배형진, 1994.
○ 『울산오씨 세보』, 농경출판사, 1984.
○ 『장흥고씨대동보』, 엔코리안 주, 2005.
○ 『전의이씨 대동보』, 농경출판사, 1979.
○ 『평강채씨 대동보』, 채영석, 1991.
○ 『평해오씨 세보』, 회상사, 1991.
○ 『함양오씨 족보』, 신흥인쇄소, 1999.
○ 『해주오씨 대동보』, 기창족보사, 1997.
○ 『해평윤씨 세보』, 윤세영, 2005.

4. 論文

○ 금사수, 「한국의 족보와 성씨 의식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김귀자, 「고려전기 성씨제도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호, 「전남본관성씨연구」, 『향토문화진흥원』, 1996.
○ 송준호,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이해」, 『역사학보』 87집, 1981.
○ 서해숙, 「한국의 성씨 시조 신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오현주, 「일제시대간행 족보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성철, 「한국족보의 근본정신과 그 윤리적 기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인혜, 「우리나라 성씨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영주, 「한국 성씨 설화설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재석,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 조직」, 『역사학보』 81집, 1979.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한문교육	학 번	2004814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오 기 주 한문: 吳 基 柱 영문: oh gi ju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134 경남@ 101동 1303호				
연락처	011-642-3355 E-MAIL: uj55oh@yahoo.co.kr				
논문제목	한글 : 나주오씨 족보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Na-ju O´s genealogical tabl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 출력을 허락함.

2007년 8월 일

저작자: 오 기 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